

전주 정신을 함양하는 학술대회

— 풍남문과 최유경을 중심으로



최유경이 건립한 풍남문

시간: 2016. 6. 24(금) 14:00-17:00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4층)

전 주 문 화 원

학술대회 일정

행사내용	시간계획	비 고
접 수	13:30~14:00	• 참석자 접수
개 회 식	14:00~14:20	• 개회선언, 개회사, 축사
기조강연	14:30~15:00	• 고려말 최유경과 풍남문 나 종 우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북역사문화학회장)
휴식 및 영상보기	15:00~15:10	• 휴식(최유경 영상 보기)
논문발표	15:10~15:40	• 풍남문의 건축사적 의의 남 해 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15:40~16:10	• 죽정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 김 종 수 (군산대 사학과 교수, 전북 사학회장)
자유토론	16:20~17:00	• 토론자: 최 기 영 (전북대 석좌교수) 최 병 선 (향토사학자) 이 용 엽 (국편 사료조사위원)

*식사는 학술대회 이후에 있음

| 인사말 |

녹음 짚고 더위도 기승을 부리는 일 년의 한 가운데의 계절에서 뜻 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변화의 속에서 자칫하면 오늘의 좌표를 잃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회자(膾炙)되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전주문화원에서는 이 시대의 귀감이 될 선현의 정신을 찾고 그 정신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위한 창의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최유경선생은 여말선초의 격동기 속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화두처럼 [국가]와 [민]을 생각했던 선생의 정신을 기리며, 풍남문을 통하여 전주의 정체성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처음부터 관심을 보여주신 최종수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전주문화원장 나 종 우

기조발표

- | 나종우 | 고려 말 최유경과 풍남문 5

논문발표

- | 남해경 | 풍남문의 건축적 의의 21
 - 토론 최기영 | 풍남문의 건축기능의 생각 36
- | 김종수 | 평도공(平度公)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 39
 - 토론 최병선 | 평도공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67
 - 토론 이용엽 | 죽정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토론문 74

고려 말 최유경과 풍남문

나종우 (원광대 명예교수 · 전북역사문화학회 회장)

I. 머리말

최유경(崔有慶, 1343~1404 :고려 충혜왕4~ 조선 태종4)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를 살다간 인물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이고 시호(諡號)는 평도공(平度公)이다. 그가 태어나 활동했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시대였다. 내적으로는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와의 갈등과 친원파(親元派), 친명파(親明派) 간의 대립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의 시대였으며, 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원명교체기에 따른 대륙에서의 내분과 혼란으로 정세가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던 시기였다. 최유경은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후세에 기억될 인물로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탐구 할 적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건이나 행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유경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료의 한계로, 그의 생애

와 활동, 그리고 풍남문에 관한 사실적 접근이 약간 있을 뿐이다. 오늘의 학술대회도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며 조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오늘의 시각에서 그의 행적을 통하여 최유경을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주의(國家主義),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법치주의나 국가주의, 민본주의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용어이기에 당시의 행적에 대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를 이러한 인물로 평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은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 타당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왕이 국가의 상징이니 국가를 지키기 위한 왕에 대한 충성이 국가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리 원칙을 지키며,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관리의 직분을 수행했다면 법치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은 민본주의라 할 수 있다고 본다.

Ⅱ. 국제정세의 변화와 위화도 회군

1. 대륙의 형세변화와 외적의 침입

고려와 원의 강화 이후 약80년 동안 지속되었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원은 성종(1294~1306)이후 황족 사이에 제위 다툼과 권신들의 전횡이 계속되었으며, 건국 이래로 전쟁을 일삼아 온 결과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순제(順帝, 1333~1367)에 이르러서는 무절제한 궁정생활이 재정난을 가속화 시켰다.¹⁾ 공민왕이 즉위하던 1351년

은 원나라 순제 지정(至正) 11년으로,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저들도 이를 전후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중국 각지에서 한족(漢族)들이 봉기 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1354년(공민왕3)에는 한족 반란군인 장사성(張士誠)을 토벌하기 위하여 원은 고려에 원군의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원이 고려에 원병을 요청한 것은 앞서 하천추절사(賀千秋節使)로 원에 건너갔던 채하중(蔡河中)의 건의가 한 원인이 되었는데,²⁾ 이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월 유탁(柳濯)·염제신(廉悌臣) 등 40여명의 장수들이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참전하였다.³⁾

원에 원병으로 참전하였던 고려군은 당시 반란군의 실세와 원의 실정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귀국한 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 고려의 국내외 정책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었다.⁴⁾ 즉위 초부터 나라의 자주성과 내정 개혁을 꿈꾸던 공민왕에게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듬해인 왕5(1356년)년부터 반원정책을 실천에 옮겨 개혁을 성공함으로써 원의 간섭을 종식시켰다.

1356년 반원개혁이후 얼마동안은 공민왕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359년(공민왕8)과 1361년의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은 이러한 상태를 동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홍건적은 중국 대륙에서 한족의 봉기가 일어 날 때 그러한 한인(漢人) 반란군의 하나로, 하북성 영평(永平)에서 한산동(韓山童)·유복통(劉福通) 등이 일어나 북중국에서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그 세력이 강성하게 됐는데, 1359년 원군의 반격을 받은 한 무리가 요동으로 쫓겨와 고려를 침범하였던 것이다. 이 때 홍건적은 서경까지 이르렀으나 고려군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되돌아갔다. 그러나 1361년 홍건적은 다시 침

1) 나종우,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383쪽

2) 『高麗史』 권125, 열전38, 간신1, 채하중

3)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3년7월

4) 나종우,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385쪽

입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왕은 안동으로 피난가기까지 하였지만, 정세운(鄭世雲)·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최영·이성계 등이 무찔러 퇴각시켰다.⁵⁾

고려는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은 물리 칠 수 있었지만 그 피해와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우선 수도인 개경이 50일간 적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남방지역도 공민왕의 남행(南行)이나 토벌군의 징발 등으로 커다란 소란을 겪었다. 그런가 하면 전후의 조정에서는 무장 세력이 크게 득세하는 가운데 평장사 김용(金鏞)이 간교한 꾀를 내어 정세운과 안우·이방실·김득배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이어지는 속에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크게 퇴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여말에 들어와 고려를 괴롭힌 또 하나의 외침세력으로 왜구를 들 수 있다. 왜구는 대마도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 이미 고종10년(1223)부터 우리 연해에 출몰하였는데, 본격적으로는 1350년(충정왕2) 부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공민왕 때에는 거의 매년 전국 각지에 침구하고, 심지어 개경 앞바다의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왜구의 창궐로 해상의 조운이 끊겨 중앙정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연해의 농민들도 약탈을 당하여 큰 화를 입게 되었다. 이에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토벌에 나섰다. 그 토벌전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최영과 이성계였다.⁷⁾

5) 김성준 「고려와 원·명관계」 『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181~182쪽

6) 민현구, 「신돈의 집권과 그 정치적 성격(상)」 『역사학보』 38, 1968, 54~59쪽

7) 나종우, 「고려말의 왜구와 그 대책」 『韓國中世對日交渉史研究』, 원광대 출판국, 1996, 나종우,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참조

2. 위화도회군과 이성계

고려가 밖으로부터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대륙의 정세는 크게 변전하여 고려에 영향을 끼쳤다. 즉, 한인(漢人) 반란군의 한 사람인 주원장(朱元璋)이 1368년 중국 남경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의 대도(大都:지금의 북경)를 함락시켜, 원나라가 멀리 북으로 달아나는 원·명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반원정책을 추구하던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연호를 사용하여 친명정책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부원세력의 기반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친명파가 공민왕을 정점으로 신진사대부로 구성되었는데 반하여, 친원파는 전통적으로 원나라와 연결되고 있었던 권문세가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친원·친명의 대립관계 속에서 공민왕은 1374년 반대파에 의하여 살해되고, 중립파인 이인임(李仁任)의 추대로 우왕이 즉위하자, 고려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걸치는 양면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이인임 일파는 우왕이 즉위하자 곧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그 승습(承襲)의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북원(北元)에 대하여는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왕 때의 친원·친명 양대 세력 간의 대립은 1388년 2월 그간 고려에 대하여 여러모로 압박을 가해오던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은 원조(元朝)에 속하던 곳으로 그곳을 다시 회수 하겠다는 철령위(鐵嶺衛)설치를 전달하여 오면서⁸⁾ 국내 정세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즉, 명나라의 요구에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최영은 크게 분개하여 이 기회에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지방까지 회복하려 요동정벌을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고려는 1388년(우왕14)에 최영이 팔도도통사가 되고, 조민수(曹敏修)

8)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638쪽

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내외의 정세로 보아 요동정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병을 반대하였던 이성계일파는 압록강 가운데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파인 최영 등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는데, 이것이 이성계가 고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과 최유경

이성계와 최유경과의 첫 만남은 이성계가 양광·경상·전라 3도의 도원수로 임명되면서 1377년(우왕 3) 최유경을 양광·경상·전라도 삼도부원수(三道副元帥)로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성계가 최유경을 부원수로 추천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는 미비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 여하튼 최유경은 부원수로 임명된 뒤에 이성계를 도와 공을 세우고, 이성계의 신임은 끝없이 이어졌다.¹⁰⁾

고려 말의 대외 정세는 잘 알려진 대로, 원과 명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였는데, 1388년(우왕14) 위화도회군은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는 그렇지 않아도 명의 부당한 요구

9) 「平度公墓誌銘」에 보면, 최유경의 충의와 강직함을 알고 부원수로 천거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환 「고려말 조선초 최유경의 생애와 활동」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효,평도공 최유경 선생 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집, 17쪽에 보면 ‘이미 원나라 잔당과 여진족을 상대로 하여 고려의 북방경계인 동북면에서 이성계의 활약상과 흥건적 침입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전국에 잘 알려져 있었다. 이성계 역시 각종 민폐를 혁거하며 조정에서 촉망을 받고 있던 8년 연하인 최유경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10) 「平度公墓誌銘」에 보면 이성계군대의 부원수였던 최유경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그의 강명剛明함을 두려워하여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삼도의 모든 진鎭들이 공경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平度公墓誌銘」에는 ‘...내가 그대를 아끼는 것은 부원수로 있을 때부터 이오’라고 하여 그에 대한 믿음의 조선 건국 후에도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최영으로 하여금 저들과 일전을 각오하여 요동정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성계가 그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영은 이성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우왕을 움직여 요동정벌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삼아 출정케 하고 최영 자신은 팔도도통사로서 평양에 남아 진군을 독려하였지만,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까지 나아갔던 이성계는 조민수를 달래어 회군, 최영을 잡아 귀양 보내고 우왕도 강화도로 내쫓고 말았다. 이 사건이 유명한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이다.

이 요동정벌을 감행할 때, 최유경은 서북도(西北道) 안렴사(按廉使) 겸 운량사(運糧使)가 되어 참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회군하니, 최유경은 성천(成川)에 있던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회군 사실을 우왕에게 보고하고 왕을 호종(護從)하여 개경으로 돌아 왔다.¹¹⁾ 그런데 당시 많은 조정 사람들이 모두 태조에게 따라 붙었으나, 최유경은 이 무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회군 사실을 보고하고 왕을 호종한 것을 두고 그의 신변을 염려하였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었다. 이런 그에 대하여 태조는 오히려 그를 밀직부사(密直副使) 상호군(上護軍)에 발탁하였다.¹²⁾ 그리고 각 도에 파견되었던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바꾸고 대간의 추천으로 토전土田을 개량하고 민정을 살펴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대신들을 선발하여 각 도에 보낼 때 전라도도관출척사로 나갔다.¹³⁾ 이러한 일들은 태조가 최유경의 충의의 마음이 평소부터 축적되어 있음을 알고 허물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¹⁴⁾

11) 『高麗史』권137, 열전 50, 우왕14년, 5월 정유조

12) 『平度公墓誌銘』

13) 『高麗史節要』33, 우왕 14년(창왕 즉위년) 8월.

14) 『平度公墓誌銘』

Ⅲ. 최유경의 가치관價值觀

1. 최유경의 국가주의

최유경은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우왕에게 제일 먼저 고변(告變)하고, 또 우왕을 호종하고 개경으로 돌아올 만큼 고려 왕실에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¹⁵⁾

최유경은 당시 이성계의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어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왕에게 회군 사실을 고했다. 이성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10여 년 전에 삼도부원수로 추천을 했고, 그 뒤로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을 터인데 왕에게 고변한 것은 꽤 씹히고 배반자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유경은 왜, 무슨 이유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키워 줄 수 있는 이성계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회군에 대한 고변을 했을까. 그것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는 왕조시대였고, 왕은 곧 국가의 상징이니 왕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것이 곧 나라(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태조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395년(태조 4) 태조는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최유경이 무진년(戊辰年: 위화도회군)에 우리를 배반한 것을 그의 임금을 위

15) 『高麗史節要』卷33, 辛禡 14年 5월. 『高麗史』 137권 列傳50, 辛禡 14年 5월.

한 것일 따름이다. 또 그는 포치(布置)의 재주가 있다.”¹⁶⁾라고 하면서 관직을 더욱 올려주라고 말하였다.

또한 태조는 최유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아끼던 것과 그대가 나를 미워하던 것이 모두가 충(忠)을 사랑하고 충에 격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가…… 옛말에 사(死)도 충(忠)이요 생(生)도 충이라 하였고, 또 진(進)도 충이요, 퇴(退)도 충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대는 전조(前朝)에서 기미를 안 사람이요, 금일에 몸을 진하였으니 의(義)를 조절하는 마음이라, 내 또한 그대를 예로써 대우하고자 하나니 이미 충의의 신으로 자부하거든 한번 과인의 조정에 설 것이오…’¹⁷⁾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의 입장에서 볼 때, 최유경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부르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주의(오늘의 관점에서 보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유경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기에 빠트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2. 최유경의 법치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¹⁸⁾라는 말이 아니라, 전 근대 사회에서 관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법을 집행 할 때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이다. 최유경에게서 법

16) 『太祖實錄』 7, 太祖 4년 4월 9일(壬申)

17) 『平度公墓誌銘』

18) 법치주의라는 말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치주의 정신을 살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1372년 판도좌랑(版圖佐郎)이 되어 업무를 파악 할 때의 일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소금이 곡식 못지않게 중요한 부富의 상징이 될 수 있었는데, 세력 있는 권세가들이 염분(鹽盆:소금가마)을 강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임금께 품의하여, 임금께서 염분(鹽盆)을 모두 국고인 염창(鹽倉)에 속하도록 하였다.¹⁹⁾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최유경이 사헌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환관 윤충좌(尹忠佐)가 국왕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윤충좌의 불법을 알고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유경은 사헌부의 일을 맡자마자 윤충좌를 탄핵하였다. 결국 윤충좌는 이듬해 변방으로 유배되어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²⁰⁾

그리고 1378년 무오(戊午)에 송사(訟事)를 공정하게 판결함으로 권신(權臣)의 미움을 사서 삭직(削職)을 당하고 고향 청주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²¹⁾ 1388년에는 권신 임견미의 무리를 벌주기도 하였다.²²⁾

최유경은 상대가 누구든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벌하는 법치주의자 이었던 것이다.

19) 「平度公墓誌銘」, 권세가의 염분 탈점은 자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염분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인 소금의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최유경은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염분을 찾아내어 국가에 귀속시켰다.

20) 윤충좌는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점령되자 국왕을 모시고 복주(福州: 경북 안동)까지 호종한 공으로 1363년 신축호종 1등 공신에 서훈된 사람이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윤충좌의 불법을 알고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었다.

21) 「平度公墓誌銘」,

22) 「平度公墓誌銘」,

예를 들면 최유경이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도순문사(都巡問使) 최운해(崔雲海)가 왜적을 보고도 추적하지 않았다하여 그를 감금하고 정부에 죄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²³⁾²⁴⁾

이렇게 되자 수령과 장졸이 모두 떨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관련된 곳에서는 부정이나 부패가 있을 수 없었다.

1382년(우왕 8) 공주목사(公州牧使)가 되어 갔을 때, 주리(州吏) 이식(李植)이 대흥군(大興:충남 예산)의 안집(安集)이 되어 순무사(巡撫使)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이식이 군사훈련을 위해 군인들을 이끌고 공주에 와서도 여전히 순무사의 세력을 믿고 무례하게 굴자 최유경은 이식을 그 자리에서 쫓아버려 간활한 아전들이 모두 복종시키기도 하였다.

위화도 회군 직후인 1388년(창왕 즉위년) 8월에 조정에서는 대신을 선발하여 각 도로 보내어 민정(民情)을 살피고, 그동안 쌓여온 폐단을 혁거(革去)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최유경은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파견되었다.²⁵⁾ 이들의 임무는 주로 호구를 증가시키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며, 학교를 부흥시키고, 잘못된 수령을 출척하며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워 방진(方鎭)의 상벌을 행하는 일이었다.²⁶⁾ 이런 자리에 최유경이 발탁된 것은 최유경의 분명하고 반듯한 행동은 어느 곳이든 변혁(變革)이 필요한 곳에 항상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그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상대방이 승복(承服)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유경은 항상 적임자로 발탁되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23) 『平度公墓誌銘』

24) 최운해(1347~1404)는 조선건국이후 개국원종공신에 오르고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존된 인물로서 좌의정을 지낸 최윤덕의 아버지이다.

25) 『高麗史節要』 33, 辛禡 14年(辛昌 卽位年) 8月.

26) 『高麗史節要』 33, 辛禡 14年(辛昌 卽位年) 7月.

1396년(태조5) 8월 최유경이 도성을 건설할 때, 도성감역관(都城監役官) 박리(朴理)가 군인을 시켜서 큰 돌을 운반하다가 길이 좁아서 어려움이 계속되자 전 밀직(密直) 이사위(李士渭) 집의 울타리를 허물어트리는 일이 있었다.²⁷⁾ 이를 본 이사위가 나와서 박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최유경은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국왕은 이사위에게 가노(家奴) 20명을 내어 남문(南門) 공사에 나가라고 명하고, 또 이사위를 구속하였다.²⁸⁾ 이사위는 종2품 밀직부사를 거쳐서해도 관찰사까지 지낸 고위 관료였다. 최유경은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공무와 관계될 때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법치주의자 이었던 것이다.

3. 최유경의 민본주의

최유경의 국가주의·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의 바탕에는 항상 민본(民本=愛民)이라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고, 일반 민이나 하층민들에게 지배계급의 불평등한 행위가 당연시되던 때에 그는 나라의 근본은 민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한 애민의 민본주의자였던 것이다.

최유경이 양광도의 안렴사가 되어 권신과 간신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시정하기도 하였거니와²⁹⁾ 1374년(공민왕 23) 강원도 안렴부사(按廉副使)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공민왕의 딸인 희전(姬殿)이 각도에 포목을 내려 보내고 해마다 쌀로 그 이자를 거두는 사채놀이를 하였는데, 이자가 비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최유경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포목을 모두 돌려보내니 백성들이 은혜로이 생각했다.³⁰⁾ 고 하였다.

27) 『太祖實錄』 10, 태조 5년 8월 17일(壬寅)

28) 『太祖實錄』 10, 태조 5년 9월 12일(丁卯)

29) 「平度公墓誌銘」

30) 「平度公墓誌銘」

또한 1399년(정종 1) 1월에는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최유경은 왕에게 「무일도(無逸圖)」를 바쳤다.³¹⁾ 그러면서 “임금이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 백성의 노고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임금 스스로 근면하고 근신하여 안일에 빠지지 말 것”을 아뢰니 기쁘게 받아들였다.³²⁾ 고 하였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관리였다. 한 때 왜적의 침략으로 장흥과 보성의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원하기도 한 일이 있었다. 이에 창왕은 개성소윤(開城少尹) 김무(金畝)를 보내어 최유경에게 술과 옷을 내리니, 이에 대하여 최유경이 은혜에 감사함의 글을 올리니 왕은 다음과 같은 회답을 하였다.

“수령과 번진(藩鎭)이 백성을 기한(飢寒)³³⁾에 빠트려 이를 시정할 사람으로 대간(臺諫)과 도당(都堂)에서 그대를 추천하기에 관찰사로 하였다. 경은 윤음(綸音)을 받들고 강개(慷慨)하여 서리와 이슬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니 대의 근고(勤苦)함을 생각하여 사신을 보내어 위문한다.”³⁴⁾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백성들이 그를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모든 관료들도 그의 인품을 모두 존경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374년(공민왕 23) 12월에는 강원도 안렴부사(按廉副使)에서 사헌부(司憲府)

31) 『定宗實錄』 1, 정종 1년 1월 1일(壬申) 「무일(無逸)」이란 남의 위에 서는 사람은 일신(一身)의 즐거움이 나 편안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무일도」는 왕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32)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諡平度公墓誌銘 新碑文」

33)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34) 「平度公墓誌銘」

장령(掌令)으로 임명되어 개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강원도를 떠나는 날 도민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한다.³⁵⁾

최유경이 바른 말로 간언(諫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태종이 최유경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 최유경에게 사행(使行) 길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물은 일이 있었다. 이에 최유경이 답하기를 관에서 침향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매향을 강요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또 지방관들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어렵(漁獵)을 강요하여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고하니 왕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이러한 폐단을 없애라고 명령하였다.³⁶⁾ 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최유경의 투철한 민을 바탕으로 하는 애민(愛民)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최유경과 풍남문

최유경은 일찍부터 토목과 건축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1369년(공민왕 18) 27세 되던 해 12월에 정6품 공부(工部) 산랑(散郎)의 관직에 오르고, 국왕으로부터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았는데 일찍부터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공부의 관직을 맡은 것을 알 수 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다음해에는 도읍을 옮길 생각을 가지고 왕의 특명으로 최유경에게 상정도감(詳定都監)과 도성영축도감(都城營築都監)을 맡도록 하자³⁷⁾ 그 뜻을 받아들였다.³⁸⁾

35) 「平度公墓誌銘」

36) 「平度公墓誌銘」

37) 『太祖實錄』 4, 太祖 2년 8월 5일(戊寅)

또한 1395년(태조4)에는 지중추원사로 태안군에 파견되어 운하를 건설할 후 보지를 물색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고,³⁹⁾ 1401년(태종 원년)에 공조판서가 되었다.

1398년 3월에 태조가 평주로 순행하면서 개성 유후사(留後司)를 들렀는데, 개성에 있는 수창궁(壽昌宮)과 성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유후(留後) 이원평과 부유후 이옥을 파면하고, 중추원사 최유경을 유후로 임명하기도 하였다.⁴⁰⁾

이상의 몇 가지 기사를 살펴 볼 때 최유경은 토목·건축분야에 재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으며,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풍남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풍남문은 고려 말 1389년(공양왕 원년)에 도관찰사(都觀察使) 최유경이 축성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⁴¹⁾ 또한 이 내용은 1734년(영조10)에 전주부성을 크게 수축(修築)한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의 기록에 보인다. 수축 당시 남문은 3층 문루를 세워 명견루(明見樓)라 부르고, 동·서·북문은 2층으로서 각각 판동문(判東門)·상서문(相西門)·중차문(中車門)이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하였다. 그 뒤 1767년의 대화재로 남·서 두문이 소실되자 이해 9월에 도임(到任)하였던 관찰사 홍낙인(洪樂仁)이 중건하여 풍남문·패서문이란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홍낙인의 풍남문 상량문에서 보아 한고조(漢高祖)의 향리 이름인 ‘풍패(豐沛)’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

38) 正憲大夫 參贊議政府事諡平度公墓誌銘 新碑文」한양 도성 공사는 1393년 8월 5일에 시작되었다.

39) 『태조실록』권7, 태조 4년 6월 6일조. 당시 임금이 태안군 북쪽에 조선漕船이 다닐 수 있는 조거漕渠(運河)를 팔 수 있는 곳을 보게 하였다. 당시 최유경은 “땅이 높고 굳은 돌이 있어서 갑자기 팔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40) 『太祖實錄』 13, 태조 7년 3월 10일(丁巳)

41) 전주문화원원 편『完譯 完山誌』 2009, 125쪽. 최유경이 전라감사로 재임했던 기간은 1388년 8월~1398년 9월까지였다.

42) 『全北文化財大觀』 전라북도, 1979, 참조

V. 맺는말

이상에서 고려말 선초의 격동기를 살면서도 권력에 빌붙어 아첨하거나 권력을 가지려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깨끗한 자세로 모범적 삶을 살았던 최유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평생을 나라(國家)를 위해 일관된 가치관으로 살았으니, 그의 가치관은 ①국가주의 ②법치주의 ③민본주의라는 현대의 민주주의 개념으로도 이해 될 수 있는 삶이었다. 그는 어느 왕조(국가)가 들어서든 그 왕조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국가가 있어야만 관도 민도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그 바탕이 되는 민을 위해서 그는 관리로서 올곧은 자세로 원칙을 견지하는 법치주의의 길을 걸었으며, 관리의 자세는 민을 위한 민본(民本)의 자세를 지녀야 하며, 이것은 곧 애민(愛民)이라 생각하였다.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삶은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삶이었다.

풍남문의 건축적 의의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머리글

풍남문은 전주부성의 남문으로 고려시대인 1388년 전라감사 최유경(崔有慶)이 축성였으며 이후 1734년(영조 10)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이 수축하였다고 전해진다. 정해대화재(丁亥大火災) 때 4대문이 소실되었던 것을 1767년(영조 43) 전라감사 홍낙인(洪樂仁)이 중건하면서 남문을 풍남문(豐南門), 서문을 패서문(浦西門)이라 하였으며 1751년(영조 51)에 전라감사 서호수(徐浩修)가 동문과 북문을 중건하여 동문을 완동문(完東門), 북문을 공북문(拱北門)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일제에 의하여 풍남문을 제외하고 3대문이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풍남문은 지금도 본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전주부성 풍남문의 건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전라감사 홍낙인이 중건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처음 건축한 최유경에 관하여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풍남문을 건축한 이후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성문인 한양성의 남문인 숭례문을 건축하였다는 사실 역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풍남문을 건축한 기술을 바탕으로 송례문이 건축되었다는 내용 역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건축양식 측면에서 풍남문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지만 송례문은 당시 남쪽지방에서 보기 드문 조선 초기에 다포양식으로 건축되어 우리나라 성문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건축적인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최유경에 관한 조명이 부족한 것은 자료가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역사가 조선시대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성곽건축의 효시가 되었던 풍남문이 전주부성의 남문인 점을 감안하여 풍남문과 관련된 전주부성과 풍남문의 건축적 의의를 알아보고 풍남문을 건축하였던 최유경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풍남문의 건축적 특성과 최유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주부성

전주부성은 고려 현종 때 조선시대에 호남권의 대표적인 지방행정도시인 전라감영이 위치하였던 전주에 축조되었다. 당시 전라감영은 행정과 군사적 측면에서 삼남지방인 전남·북, 제주도를 통괄하였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는 농민군과 관이 집강소를 설치하여 관민협치를 펼치기도 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삼남지방에서 가장 큰 성으로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총괄하였던 것이다. 당시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삼남지방에서 지방정부의 성은 필수적이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전주부성이 건축되었던 것이다. 전주부성은 창건이후 아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다가 1911년 일제의 폐성령에 의하여 남문인 풍남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훼손되었다.

〈표 1〉 전주부성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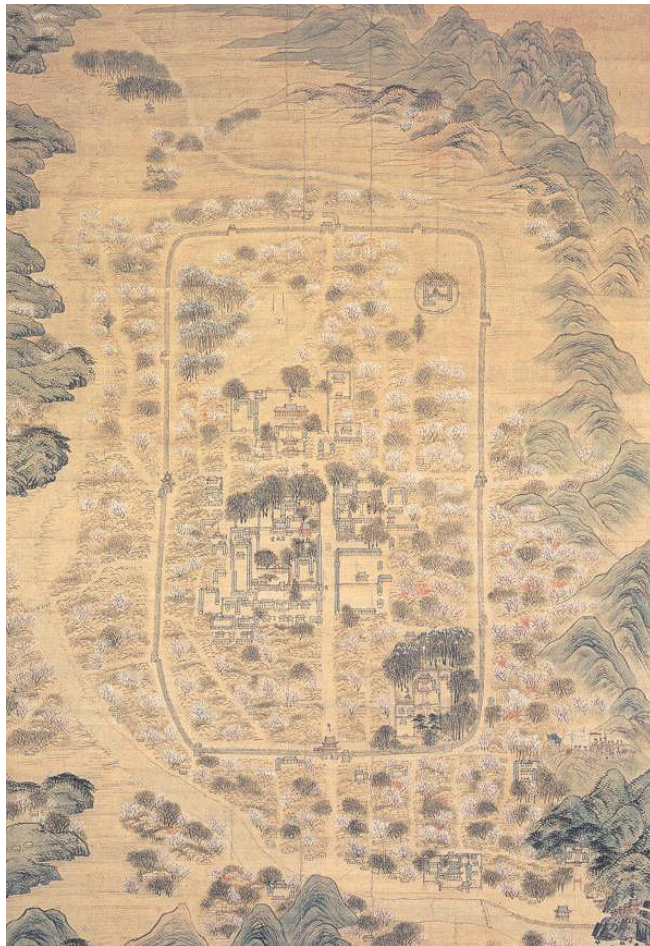
년 도	연 혁	비 고
고려 현종 (1009~1031)	◦ 전주부성 성곽 축조	추정
공양왕 원년 (1388)	◦ 관찰사 최유경 축성	
영조 10년 (1734)	◦ 관찰사 조현명 수축	
영조 43년 (1767)	◦ 3월 정해대화재(丁亥大火災)로 4대문 소실 ◦ 전라감사 홍낙인 남문, 서문 건축 ◦ 명건루(3층→2층), 3대문(단층) ◦ 남문을 풍남문, 서문을 패서문으로 명명	
영조 51년 (1775)	◦ 전라감사 서호수 동문, 북문 중건 ◦ 동문은 완동문, 북문은 공북문으로 지칭	
1911	◦ 풍남문을 제외한 3대문 철거	조선통감부 폐성령

전주부성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나타나는데 남문인 풍남문을 비롯하여 북문인 공북문, 동문인 완동문, 서문인 패서문을 외곽으로 웅성과 치성, 망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 전주부성의 구성은 〈표 2〉에서와 같이 성문과 성벽, 웅성, 치성, 여장, 포루, 총안, 타구, 유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2〉 고문헌에 나타난 전주부성의 구성

고문헌	성문	성벽		웅성	치성	여장	포루	총안	타구	유정	기타
		길이	높이								
축성계초		2,247보		253보	8						죄수활용 건축
호남읍지		5,356척	8척	1	11	1307	12	3,921	1,306	223	
완산지		5,356척		1	11	1307	12	3,921	1,306	223	
전주부읍지	4	2,618보		1	11		12	3,921	1,306		
호남읍지	4	5356척	8척	1	11	1307	12	3921	1306	223	

전주부성이 그려진 고지도는 전주지도를 비롯하여 10여 개가 전해진다. 시대적으로 전주지도가 1700년경에 제작되었으므로 전주부성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의 시설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풍남문은 전주지도, 해동지도를 비롯한 여지도, 광여도 등에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웅성은 해동지도, 여지도, 광여도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모두 4개로 표현되어 있다. 치성은 해동지도에서 6개로 묘사되고 있다. 망루는 전주지도에서 5개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해동지도와 완산십곡병풍도, 전주지도에서 성안의 내부가로망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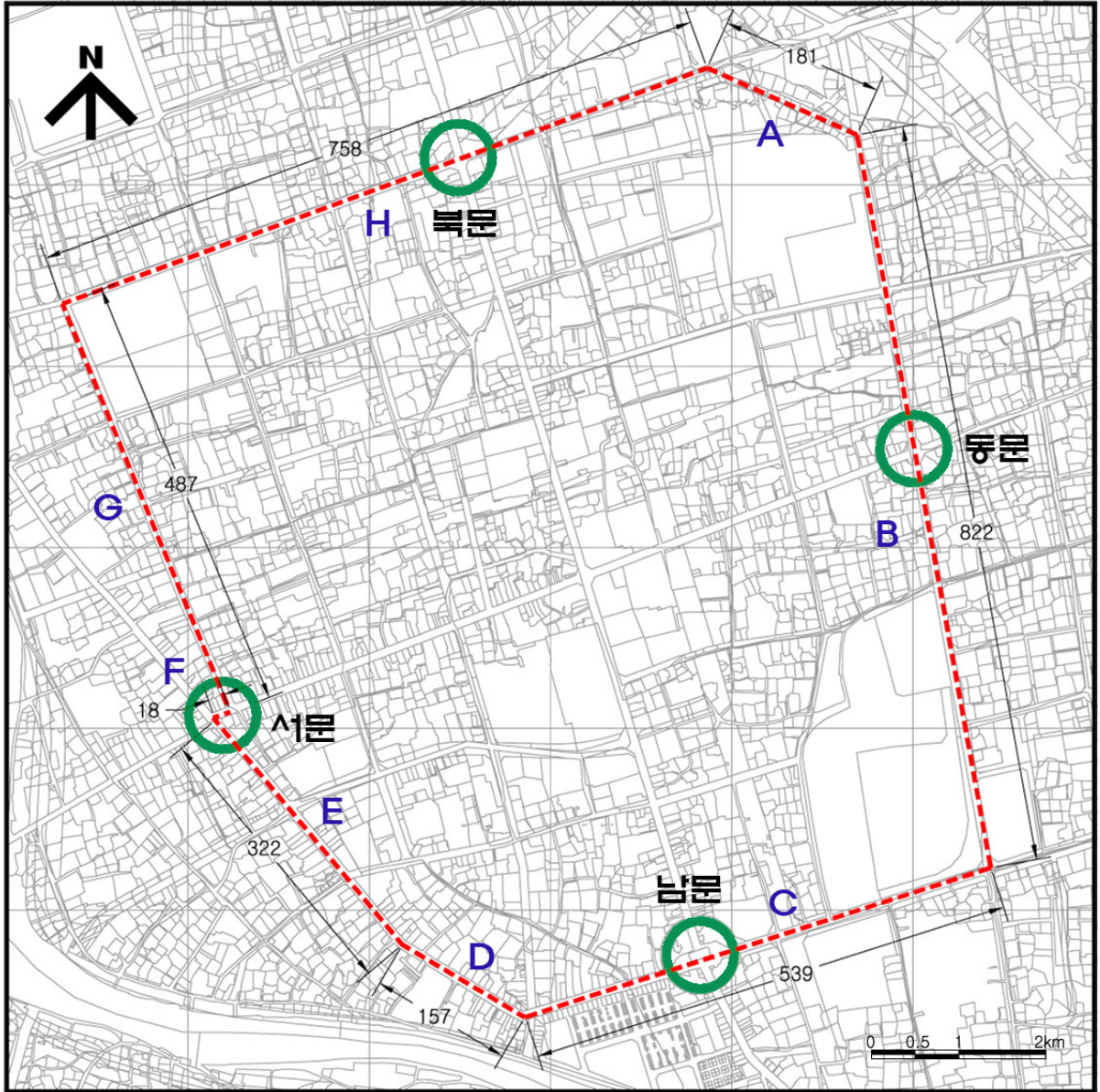


전주부성, 서울대 규장각, 1700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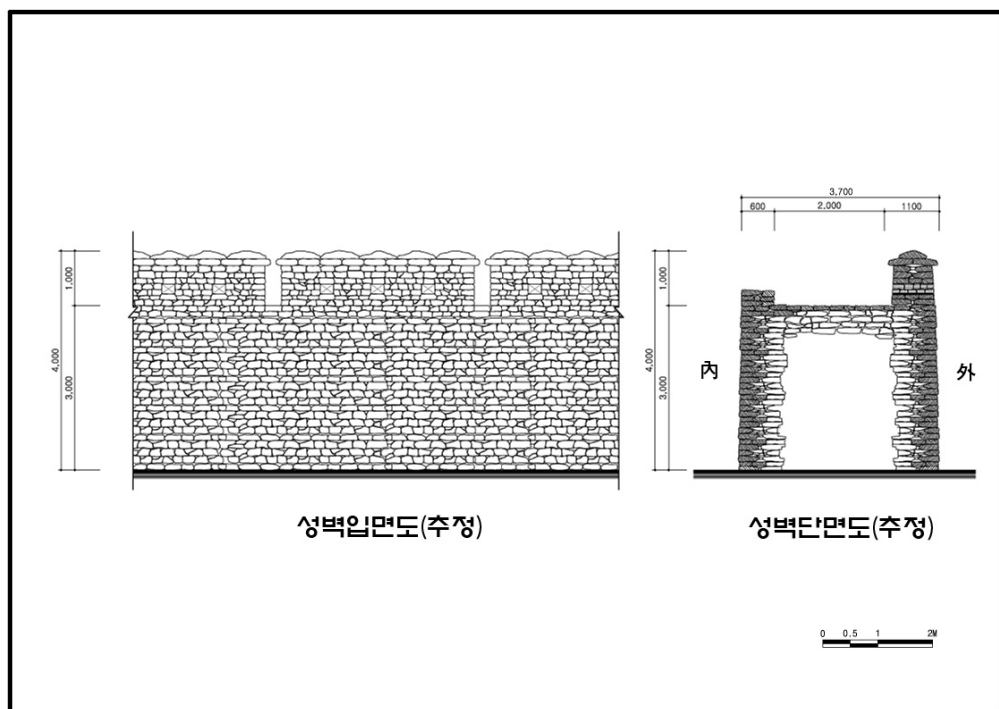
〈표 3〉 고지도에 나타난 전주부성의 구성

지 도	제작 년도	성문				옹 성	치 성	망 루	기타	
		남 문	북 문	동 문	서 문					
전주지도	1700	○	○	○	○			5		규장각
해동지도	1750	○	○	○	○	4	6		내부 가로망	성신 여대
비변사인방안지도	18C 중반								형태	규장각
여지도	1789	○	○	○	○	4				규장각
전주지도	1840	○	○	○	○					전북대
대동여지도	1861								위치	
완산십곡병풍도	1870								내부 가로망	
전주지도	1872								내부 가로망	
광여도	19C	○	○	○	○	4				

이상과 같이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주부성의 성 둘레 길이는 5,356척, 2,618보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현대 척도로 환산하면 약 3,215.4m가 된다. 성벽의 높이는 문헌상의 기록으로 8척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 척도로 환산하면 성벽의 전체 높이가 4m이고, 성벽위의 보도 폭은 2m이며 외여장의 높이는 1m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장은 1,307개로 전하고 치성은 11개, 옹성은 1개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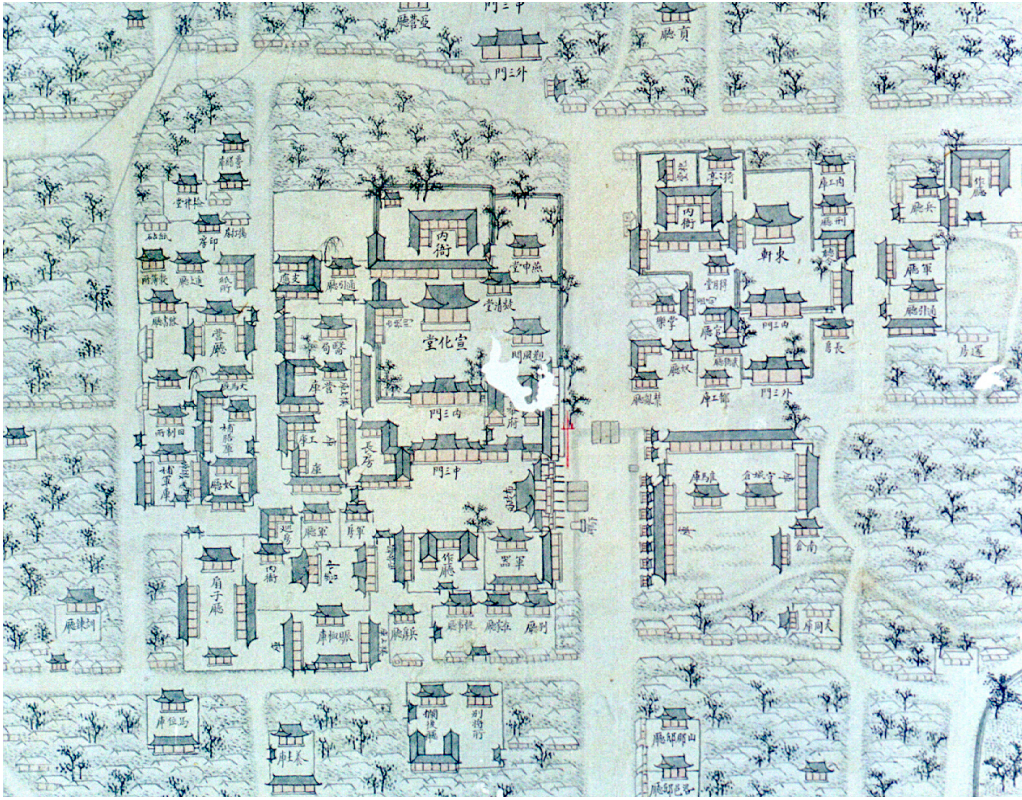


전주부성 추정도



전주부성 성벽 추정도

전주부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감영에는 정청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객사, 감사의 처소인 연신당(燕申堂), 감사 부친의 처소인 관풍각(觀風閣), 감사의 가족 처소인 내아(內衙), 예방비장(禮房裨將)의 집무소인 응청당(凝淸堂), 6방 비장의 사무소인 비장청(裨將廳), 감사의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통인청(通人廳), 하부 실무자들이 일하던 작청(作廳), 정문인 포정루(布政樓) 등 25개의 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우리나라 역사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주부성 훼손과 근대도시 형성과정에서 대다수 건물이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건물은 1951년 경찰서 무기고의 폭발사고로 없어졌다. 현재는 남문인 풍남문과 객사만이 남아 있다.



전라감영

3. 풍남문

3-1. 풍남문의 건축

풍남문은 전주부성의 남문으로 1388년(우왕 14) 9월에 초창되었다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 1734년(영조 10) 영조의 명으로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이때 남문을 중시하여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의 문으로 기능을 부여하여 3층의 문루를 세웠고 내외에 홍예를 설치하여 ‘명견루(明見樓)’라 명명하였다. 재건 33년 후인 1767년(영조 43)에 민가에서 발화한 불로 인하여

소실되었던 것을 관찰사 홍낙인(洪樂仁)이 2층으로 축소하여 중건하고 “풍남문(豐南門)”이라 명명하였다. 1905년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서 동, 서, 북의 3문이 훼손되었으나 풍남문만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풍남문의 변천

시대	시기	풍남문	비고
고려	1388 (공양왕 원년)	관찰사 최유경 창건	4대문 설치
조선	1597 (선조 30)	정유재란 화재로 파괴	
	1734 (영조 10)	관찰사 조현명이 3층으로 중건	명건루 명칭
	1767 (영조 43)	3월 화재로 소실 9월 재건	
	1768 (영조 44)	관찰사 홍낙인 재건 (2층)	풍남문 명칭
	1865 (고종 2)	관찰사 정건조 수리	서까래 교체 기둥 보수
현대	1907	종각, 포루 설치	
	이후	종각, 포루 훼손	



풍남문 사진(1930년대)

풍남문의 건축은 성벽을 자연석 화강암으로 높게 쌓아 육축부를 구성하고 상부에 문루, 포루, 종각을 배치하였으며 외부에 옹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홍예

문 석축위에 여장을 쌓고 여장 좌우에는 협문을 내어 출입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루는 무사석으로 축조한 홍예문 석축위에 중층 팔작지붕을 얹었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양식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양성을 만들어 꾸미고 있다. 평면은 1층이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2층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다. 1층은 12개의 평주와 8개의 고주로 구성되었으며 2층은 내진고주를 그대로 올려 결구하였다. 1층 내부에는 전후 2열의 고주 4본이 그대로 연장되어 2층에서는 변주가 되고 있다. 1층 마루는 우물마루를 설치하였고 2층에는 장마루를 설치하였다.

가구는 기둥 상부를 창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주심포양식의 공포를 설치하고 있다.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귀면, 화병, 수상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된 화반이 끼워져 있다. 아래층 전후면 어칸 기둥위에는 용의 머리를 조각한 초공이 있으며 귀포의 귀한대에도 용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대량위에는 동자루와 종량을 설치하고 종도리를 얹었다. 종도리와 외목도리에 연목을 걸고 연목 끝에 부연을 달았다. 천장은 2층 종량사이만을 현란반자로 마감하였다.

3-2 풍남문과 최유경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한반도 북쪽은 원의 세력이 북방을 지배하고 있었고 신흥 명나라는 중원을 차지하였으며 남부지방에는 왜구들의 침략이 수시로 행해지던 시대였다. 특히 왜구는 남부 해안지역에서 수시로 출몰하면서 한반도의 해안지역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런 지형적, 정치적 여건에서 읍성과 성의 관문인 성문은 행정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한층 그 중요성이 커졌으며 특히 위정자들에게 그 의미는 각별했다.

이에 당시 전라도지역과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은 전주부성을 축성하고

그 성문을 건립하게 되며 그 임무를 최유경이 맡았다. 최유경은 자신의 건축적 식견과 관찰사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시대가 요구한 건축적 요구를 달성하였다.

최유경이 풍남문을 짓는 일을 주관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조선후기 영조 때 전라감사를 지냈던 조현명이 1734년(영조 10)에 쓴 「명견루기」에 나온다⁴³⁾. 당시 조현명은 퇴락한 전주부성을 수축하면서 남문도 새롭게 고쳐짓고 문루 이름을 명견루(明見樓)로 하였으며 창건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부성을 건설한 것은 우리 태조대왕이 회군의 의거(위화도회군)를 거행하던 해이다. 관찰사 최유경이 이를 실제로 주도했다고 한다.(府城之設, 在我太祖大王舉義回軍之年, 觀察使崔有慶實主之云)

1734년 조현명은 전라감사로 내려와 있으면서 부성을 수축하고 남문을 고쳐지었는데, 기문을 적으면서 기문 첫머리에 최유경이 건축하였다는 내용을 적었던 것이다. 또한 『여지도서』 전주편에도 '국초에 도관찰사 최유경이 처음 축조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단지 최유경은 1383년(우왕 9)에 공주 목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전주에 부성을 설치했다는 1388년(우왕 14)에는 서북면의 전운사 겸 찰방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위화도 회군이 있자 왕을 모시고 도성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회군이 7월에 있었으므로 이후에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서 전주부성 축성을 주관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했던 평도공(平度公) 최유경(崔有慶)은 당시의 정치적 격동기에 권력 상층부에 있으면서 아울러 건축공사와 관련한 일에서 주도적

43) 조현명, 『歸鹿集』 권18, 기

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고려 말에는 삼남지방의 관문인 전주부성과 남문인 풍남문의 건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하며, 조선건국 후 한양 천도 당시에는 도성 남문인 숭례문을 세우는 일을 총괄 수행했다. 이들 건물은 후대에 몇 차례 중수를 거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잘 남아있으며 현재 풍남문은 보물 제 308호,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유경은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의와 포치(布置)에 관한 식견을 인정받아 개국공신이 되었고 경기도관찰사를 비롯해서 참찬의정부사를 맡았다. 그리고 성격이 곧아 남에게 굽히거나 아첨함이 없어 평도(平度)라는 시호를 내릴 정도였다. 일례로 1395년(태조 6) 최유경에게 지중추원사를 제수하면서 태조는 최유경을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이 무진년에 비록 우리들을 배반하였으나 이는 임금을 위한 것이요, 또 포치하는 재주가 있다(慶尙道都觀察使崔有慶, 在戊辰年間, 雖負我輩, 然爲其主耳, 且有布置之才)”(『태조실록』권7, 태조 4년 4월 9일).

여기에서 태조는 최유경이 ‘포치하는 재주(布置之才)’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치지재란 건물들을 배치하고 좌향을 잡는 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유경이 이미 고려 말부터 이런 일에서 상당한 식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유경은 단순히 공신에 오르고 중앙관서의 고위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숭례문 창건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기보다 포치로 요약된 공사에 대한 그의 식견이 인정되어 그 직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⁴⁴⁾

최유경은 풍남문을 건축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충성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44) 이정미, 숭례문과 풍남문의 건축사적 의미와 평도공 최유경의 역할, 용인문화원 2013년 제2차 학술대회, 2013

개국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한 이성계를 도와 송례문을 건축하게 되는데 1960년대의 수리공사 때 발견된 상량기에 그 내용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⁴⁵⁾

송례문은 그가 초창한 이후 세종 때 다시 고쳐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건축양식 측면에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유행하던 주심포식이 아닌 조선 중기 이후 유행하던 다포식 건물로 지어졌다. 조선 초기 건축 가운데 이런 다포식의 건물은 북한지역에 개성 남대문, 안변 가학루 등이 있는데 남한지역에서는 송례문이 유일하다. 이렇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문 건축을 주도한 최유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5. 맺는말

전주 풍남문은 전주부성의 관문으로 고려 현종 때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전주부성은 왜구에 대한 남부의 요충 방어로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로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이었다. 그러한 성의 주관문인 풍남문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건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 최유경은 고려 말에 관직에 올라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할 때는 이를 왕에게 미리 알리는 등 충의를 보여 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건물의 배치나 좌향에 대한 포치지재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개국공신에 올랐다. 즉, 그가 조선의 개국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의 풍남문을 건축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송례문을 창건할 때 모든

45) 1961년 남대문 해체수리공사에서 2층 중도리 받침 장여에서 목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태조 5년의 송례문 창건 공사에서 최유경이 공사 최고 책임자로 일을 주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1966)

감독관과 장인들을 통솔하는 최고위의 직책을 맡은 것은 그의 충직하고 의로운 성품과 함께 포치에 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전주 풍남문은 조선시대 초기에 건축된 승례문과 더불어 최유경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몇 차례 중건을 거듭했지만 현재까지도 지방 읍성의 정문과 도성 정문을 대표하는 건물로 남아 있다. 특히 풍남문은 읍성으로서 건축적 미학이 뛰어나고 조선 전기 성문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풍남문, 승례문의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고려 말, 조선 초의 성곽 문의 건축을 주도했던 건축가 최유경에 관하여 새롭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 사료의 개발과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론』

『귀록집』

『난중잡록』

『홍재전서』

조현명, 『축성계초』, 1734

조현명, 『풍남문루기』

『호남읍지』, 1793

『전라도관찰사영지』

『경기전』

『완산지』

전주부, 『전주부사』, 1943

문화재청, 『풍남문실측조사보고서』, 200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1966

이희권,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 2008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1994

전주시, 『전주시사』,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역사박물관,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2004

풍남문 건축기능의 생각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풍남문, 승례문

평도공(平度公) 최유경(崔有慶, 1343~1413), 이 어른은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 태조 이성계의 삼고초려로 출사하여 조선 초인 1393년 축성도감에 임명된 그는 한양성을 축성하면서 승례문을 건립하였고, 전주성을 축성하면서 호남제일의 문루인 풍남문을 건립하였다. 바로 이 분이 본인의 선조이시다.

이 분의 청백함, 효심, 그리고 곧은 성품으로 당대의 사회상과 정치상황 국가적 백년대계 등의 시대의식이 집약된 건축물이 풍남문과 승례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 학술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 등은 전북대 남해경 교수님께서 잘 기술하였기에 본인은 기능적인 부분만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풍남문과 승례문은 축성시기가 많은 차이가 없지만 시대적으로 본다면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로 나눕니다.

풍남문은 고려시대 때 성행했던 풍수지리학적으로나, 당대 건축 구조적으로나 전라도 제1의 관문이고 현존하는 풍남문은 임진왜란 후 중건한 모습이나 그

속에는 고려시대의 혼이 담긴 건축 기법으로 500년을 넘어 1000년을 갈 수 있는 건축물이다.

송례문은 풍남문 보다는 역사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유행한 하양식 기법과 고려시대는 우미량으로 주심과 오량을 결구시키는 수덕사 대웅전 같은 고려시대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는 흔히 다포기법이라 하여 주심포와 주간포를 일정간격으로 배열하여 지붕의 하중을 받치는 건축구조 형태였다. 송례문은 어찌 보면 고려인이 지었고 건축 시기는 조선태조 4년에 건립한 조선시대 건축물이다. 다시 말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대목장은 고려에서 기능을 전수 받았고 건축은 조선시대 건축이 되었기에 송례문의 귀포 부작과 내부를 자세히 보면 다포기법과 일출목기법을 접목시킨 전환기적 기법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보 1호로 지정되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유경 선조께서는 고려와 조선 두 시대를 산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선에서 구시대적 기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만큼 건축기법에서도 변화를 주어 새로운 조선은 고려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가가 변화하면서 정신적 이대올로기도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고 지배세력 또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태조 또한 불심이 있었고 당대에 유교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모든 조선 초기의 문화는 고려와 혼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의(衣)와 식(食)을 모두 담는 주(住)는 당시에 모든 시대상과 시대의식을 담고 있기에 송례문의 전환기적기법

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송례문은 도성으로 들어가는 정문으로써 조선의 얼굴이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선으로써의 정체성을 살리려 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평도공(平度公) 최유경(崔有慶) 이 어른은 이렇듯 건축물 하나에도 국가의 백 년대계를 생각하던 분이었고, 건축물 또한 500년을 넘어 1000년을 가는 역사적 건축물로 자리 잡았고 현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것을 볼 때, 현시대에 30년~50년을 가는 건축물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전통건축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 수 있다.

본인은 선조인 최유경 어른을 부각 시키려는 것 보다는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거울삼아 현시대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최기영은 고려와 조선의 두 시대에 거쳐 명인이라 할 수 있는 최유경 선생님의 후손으로써 본인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입니다.

전북대 남해경 건축학과 발제에 대목장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평도공(平度公)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

김종수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최유경(崔有慶, 1343~1413)은 본관은 전주이고, 자(字)는 경지(慶之), 호(號)는 죽정(竹亭), 시호(諡號)는 평도공(平度公)이다. 그는 전주 풍남문과 한양 숭례문의 건축을 주관하였고, 태종 때에는 아들 최사의(崔士儀)와 더불어 청백리(淸白吏)에 초선(抄選)되었다. 조선초기에 청백리는 태조 때 2명(안성, 우현보), 태종 때 8명(경의, 이지직, 김약항, 이백지, 박서생, 이원, 최유경, 최사의) 총 10명이 뽑혔는데¹⁾, 최유경은 그 중에 아들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우왕에게 제일 먼저 고변(告變)하고, 또 우왕을 호종하고 개경으로 돌아올 만큼 고려 왕실에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²⁾

최유경은 고려 말 조선 초 격동의 시대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 역사 속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그에 관한

1) 『增補文獻備考』 198, 選舉考 15, 薦用 1. “本朝 … 太祖二年 以安省·禹玄寶 選淸白吏 … 太宗元年 以慶儀·李之直·金若恒·李伯持·朴瑞生·李原·崔有慶·崔士儀 選淸白吏”

2) 『高麗史節要』 卷33, 辛禡 14年 5월. “丁酉 漕轉使崔有慶 奔告于禡”

『高麗史』 137卷, 列傳50, 辛禡 14年 5월. “丁酉 漕轉使崔有慶 以回軍 奔告于禡”

연구는 많지 않다. 김성환의 「고려 말 조선 초 죽정 최유경의 생애와 활동」³⁾이라는 논문 단 1편만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태종실록』에 수록된 최유경 졸기(卒記)만을 이용하였고, 『전주최씨십수세보(全州崔氏十修世譜)』 수편(首編)에 수록된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조선참찬의정부사시평도공묘지명(朝鮮參贊議政府事諡平度公墓誌銘)」(이하 「평도공묘지명」으로略함)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평도공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⁴⁾이 영조 때 간행된 『전주최씨세보(全州崔氏世譜)』의 「정헌대부참찬의정부사증시평도공최공묘지명(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贈諡平度公崔公墓誌銘)」(이하 「최공묘지명」으로略함)에는 나오지 않고, 또 「평도공묘지명」의 찬자가 변계량으로 되어 있는데, 최유경과 변계량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것 역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평도공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은 위화도 회군에 반대했다가 신왕조에 참여한 최유경의 태도 변화가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후손들이 최유경이 이색에게 정몽주와 길재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내용을 그 해소 장치로서 넣었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평도공묘지명」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모든 기록들이 『고려사』, 『고려사절요』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반인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도저히 후대 사람들이 위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 후손들이 위조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는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 이후 최유경으로 추측되는 문생(門生)과 이색이 손을 잡고 산에 들어가 통곡했다는 내용⁶⁾이 이공익의 『연

3) 김성환, 「고려 말 조선 초 죽정(竹亭) 최유경(崔有慶)의 생애와 활동」 『圃隱學研究』 13집, 2014.

4) 「平度公墓誌銘」 “公不得已奉聖旨 與書李牧隱曰 天地翻覆 此何世界 吾輩曾非愛死者 而不幸未死於本朝 乃見今日 生而不如死也 實爲鄭達可吉純一之罪人 生何以對純一於世上 死何以見達可於地下 惟吾兩心之相照也”

5) 김성환은 앞의 논문, 228쪽에서 “이런 점에서 종중에서 간행한 『全州崔氏十修世譜』와 『德傳千秋』(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중회, 2009)는 자료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각주를 붙여 강조하고 있다.

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도 나와 있다.⁷⁾ 「평도공묘지명」 기록의 정확성을 『연려실기술』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 역시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평도공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이 『전주최씨세보』의 「최공묘지명」에는 나오지 않아 「평도공묘지명」이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하지만, 「최공묘지명」과 「평도공묘지명」은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달라 서로 다른 자료로 추측된다.⁸⁾ 최근(1972년)에도 평도공묘지명이 새로이 작성되고 있다.⁹⁾ 이와 같이 최유경의 묘지명이 여러 개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최공묘지명」에는 없는 내용이 「평도공묘지명」에 있다고 하여 「평도공묘지명」을 후손들이 조작한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보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또 이것은 최유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를 빼놓고 연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평도공묘지명」을 쓴 변계량과 최유경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하였는데, 최유경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사(判事), 검찰청장·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찬을 지낸 조선초기 최고위층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동시대에 살았던 변계량(1369~1430)이 모를 리가 없다. 또 변계량과 최유경은 26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변계량 역시 최유경처럼 조선 개국에 찬성하지 않았던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의 노선에 찬동하였고, 1392년(태조 1)~1396년(태조 5)에는 병을 칭탁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가 이후 조선 정계에 발을 들여놓아 많은 업적을 남겼다.¹⁰⁾ 이와 같이 최유경과 변계량은 사상과 행동이 비슷하므로 드러나는 자료

6) 「平度公墓誌銘」 “其後相逢 輒携手入窮山 相對痛哭而歸”

7) 『燃藜室記述』 권1, 太祖朝古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 李穡. “一日門生來謁 公携之引入深谷 門生莫知其故 及至人跡所不到處 放聲終日痛哭”

8) 『全州崔氏十修世譜』, 「평도공묘지명 해제」에서 崔守魯 씨는 오히려 「최공묘지명」(乙丑譜)에 문제가 많고 「평도공묘지명」(隆慶譜)이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다.

9) 李宗勳, 「正憲大夫參議政府事諡平度公墓誌銘」, 1972. (『全州崔氏十修世譜』所收)

는 없지만 많은 교류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변계량의 아버지 변옥란(卞玉蘭)은 1376~1379년 사이에 청주목사로 나갔는데¹¹⁾, 이때 최유경은 이인임, 임견미 등 권신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서 해임되어 고향인 청주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때부터 변옥란의 아들 변계량이 최유경을 알았을 수도 있다. 변계량과 최유경의 드러나는 교류 관계 자료가 없어 변계량이 쓴 「평도공묘지명」이 의심스런 자료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주최씨십수세보』에 수록된 변계량의 「평도공묘지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전주최씨세보』의 「최공묘지명」과 대조해가면서 이 두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아울러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연대기 자료를 참조하여 최유경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의 청백리 정신과 충(忠)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고려 말 조선 초 격동의 시대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과 감명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2. 고려 말의 관직 생활

최유경은 아버지 문정공(文貞公) 최재(崔宰)와 어머니 무안(務安) 박씨 사이에서 1343년(충혜왕 복위4) 4월 갑자일에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울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재는 관직이 감찰대부(監察大夫),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으며 『고려사』, 열전(列傳)에 입전(入傳)된 인물로서 성격이 강직하여 동요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존경하였다고 한다.¹²⁾ 최재는 신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최사

10) 박병련, 「春亭 卞季良의 정치사상과 정치적 활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8, 2009, 132쪽.

11) 『太祖實錄』 7권, 태조 4년 1월 23일. “檢校判中樞院事 卞玉蘭卒 … 丙辰(1376) … 出牧淸州 庚申(1380) 又牧忠州”

12) 『高麗史』 111卷, 列傳24, 崔宰. “崔宰 字宰之 完山人 父得桴 廉正自守 … 辛禡三年 拜密直副使商議 固辭乞退 復封完山君 四年卒 性剛直不撓 見重於世 子思美·德成·有慶”

미와 최덕성을 낳았고, 박씨 부인과 재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최유경이고, 딸은 각각 우인열(禹仁烈, 1337~1403)과 조녕(趙寧)에게 출가하였다. 최유경은 1355년(공민왕 4, 13세)¹³⁾부터 바깥 스승에 나아가 글공부를 하였는데 매우 총명하여 문정공이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¹⁴⁾

1360년(공민왕 9, 18세) 최유경은 밀직사사(密直司事) 일선(一善) 김달상(金達祥)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해 9월에 청백(淸白)과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선인관직(宣仁館直)에 임명되었다. 선인관(宣仁館)은 개성 궁성의 동쪽에 있는 선인문(宣仁門) 옆에 설치된 관사로 생각된다. 선인관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된 관청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삼봉 정도전이 명나라 사신 주탁(周倬)에게 지은 “선인관(宣仁館) 석상(席上)에서 차운(次韻)하여 국자전부(國子典簿) 주(周)선생에게 적어주다”라는 시가 『삼봉집』에 전하고 있다.¹⁵⁾ 최유경은 18세 때 선인관을 관리하는 직책에 처음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관리가 되는 데에는 과거를 통하거나 음서(蔭敍)를 통해 관리가 되는 2가지 길이 있었는데, 최유경은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아들, 손자, 동생, 조카, 사위 등을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인데, 고려시대에는 널리 시행되었다. 최유경의 아버지가 종2품 밀직부사까지 오른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승음(承蔭)을 받아 관직에 나아간 것이다.

일선군(一善郡) 부인 김 씨와는 후에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된 첫째 아들 최사위(崔士威)를 낳았는데, 1362년(공민왕 11, 20세) 부인 김 씨가 작고하였다. 1366년(공민왕 15, 24세) 정6품 승봉랑(承奉郎)의 관계(官階)를 받았다. 1369년

13) 괄호안의 나이는 최유경의 나이이다. 以下 같음.

14) 『平度公墓誌銘』 “乙未 出就外傳 習口讀 聰明絕倫 文貞公諸子中 視公尤奇重之”

15) 『三峰集』 2권, 七言律詩, 宣仁館席上次韻錄呈國子典簿周先生

(공민왕 18, 27세) 판이부(判吏部) 상락(上洛)¹⁶⁾ 김묘(金昴)의 딸과 2번째 결혼을 하였다. 그해 12월에 정6품 공부(工部) 산랑(散郎)의 관직에 오르고, 국왕으로부터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았다. 어대는 고려시대 때 문관의 공복(公服)에 패용하여 위계(位階)를 나타내던 물고기 모양의 장식물로서, 비어대는 상참 6품 이상의 관리가 착용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29세) 정6품 민부산랑(民部散郎)이 되고, 1372년(공민왕 21) 판도좌랑(版圖佐郎)이 되었다. 민부(民部)나 판도사(版圖司)는 모두 동일한 관청인데 1372년 민부에서 판도사로 이름이 고쳐졌고, 산랑과 좌랑도 모두 같은 정6품 관직인데 1372년 산랑에서 좌랑으로 관명이 고쳐졌다. 즉 민부산랑과 판도좌랑은 동일한 직책인데 1372년 명칭만 바뀐 것이다.¹⁷⁾ 그런데 당시 국가에서 각도에 의염창(義鹽倉)을 설치하였는데 염분(鹽盆)이 모두 권세가들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최유경은 그 폐단을 상서하여 권세가가 차지한 염분을 다시 모두 의염창에 속하게 하였다.¹⁸⁾

고려 말 국가에서는 염(鹽)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염 전매제는 충선왕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부의 재정난 극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염 전매제의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염분은 원칙상 국가의 관리 하로 귀속되어야 했고, 국가에서는 염을 관리하는 의염창을 설치하였다.¹⁹⁾ 그러나 권세가들은 몰래 다수의 염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민왕대 이후 정치기강이 문란해짐에 따

16) 경상북도 상주시의 옛 별호(別號).

17) 판도사(版圖司)는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그런데 1298년(충렬왕 24)에 민조(民曹)로 고쳤고, 1308년(충선왕 1)에 민부(民部)로 고쳤다가 뒤이어 다시 판도사로 고쳤으며,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호부(戶部)로 고쳤다. 그 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판도사로 고쳤고, 1369년(공민왕 18)에 민부로 고쳤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판도사로 고쳤으며, 1389년(공양왕 1)에 호조로 고쳤다. 민부에서 1372년 판도사로 고쳤는데 『평도공묘지명』에서는 정확하게 1371년은 민부, 1372년은 판도사로 호칭하고 있다. 『평도공묘지명』 기록의 정확성을 느낄 수 있다.

18) 『平度公墓誌銘』 “時各道置義鹽倉 而鹽盆皆爲豪強所占 公具書以聞 皆屬鹽倉 豪強者知其所畏”

19) 『高麗史』 77, 志 31, 百官 2, 義塩倉. “義塩倉 恭愍王置 丞秩從七品 注簿從八品”

라 권세가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점병과 함께 염분의 대부분도 이들에게 탈점되었다. 권세가의 염분 탈점은 자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염분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인 소금의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²⁰⁾ 이에 최유경은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염분을 찾아내어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다.

1374년(공민왕 23, 32세) 강원도 안렴부사(按廉副使)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민왕의 딸인 희전(姬殿)이 각도에 포목을 내려 보내 사채놀이를 하였는데, 이자가 비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최유경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포목을 모두 돌려보냈다.²¹⁾ 그 해 12월 종4품 봉선대부(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임명되어 개경으로 소환되었는데, 강원도를 떠나는 날 도민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한다.²²⁾ 최유경이 사헌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환관 윤충좌(尹忠佐)가 국왕의 총애를 믿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윤충좌는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점령되자 국왕을 모시고 복주(福州: 경북 안동)까지 호종한 공으로 1363년 신축호종 1등 공신에 서훈된 사람이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윤충좌의 불법을 알고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유경은 사헌부의 일을 맡자마자 윤충좌를 탄핵하였다. 결국 윤충좌는 이듬해 원지(遠地)로 유배되어 그 세력을 잃고 만다.

1375년(우왕 1, 33세) 정4품 전법총랑(典法總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 법부에서는 이사충(李思忠)이 자신의 가노(家奴)가 자신을 찔러 죽이려 했다고 고발한 의옥(疑獄)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사충의 가노를 아무리 고문(拷問)과 신문(訊問)을 가해도, 이사충의 가노는 진상을 실토하지 않고 있었다.

20) 권영국, 「14세기 榷鹽制의 成立과 運用」 『韓國史論』 13, 1985, 44쪽.

21) 「平度公墓誌銘」 “初恭愍王以姬殿 息布送于各道 分給民間 每年以粳米收其利 民甚患苦 至是公不稟朝廷 列其弊 悉以還送 民懷其惠”

22) 「平度公墓誌銘」 “去道之日 一道之民 如失怙恃”

이때 최유경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달래어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백하게 하였다.²³⁾

1376년(우왕 2, 34세) 군부총랑(軍簿總郎)이 되었다. 그리고 1377년(우왕 3, 35세) 양광·경상·전라도 삼도부원수(三道副元帥)가 되었다. 이때 삼도도원수는 이성계(李成桂)였다. 이성계는 평소 최유경의 충의와 강직함을 알고 있어서 그를 부원수로 추천한 것이다. 그해 5월 이성계는 삼남에 침투한 왜구를 지리산에서 섬멸하였는데 이성계 군대는 싸우면 반드시 이겼으므로 각 고을들은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 바라보듯이 이성계 군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²⁴⁾ 그러한 이성계 군대의 부원수였던 최유경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그의 강명(剛明)함을 두려워하여 조금도 균율을 어기지 않아 삼도의 모든 진(鎭)들이 경탄(敬憚)하였다고 한다.²⁵⁾ 이때 이성계는 최유경의 인품과 자질을 신임하여 죽을 때까지 그를 믿고 후원하게 된다.²⁶⁾ 최유경은 이후 종3품 중현대부(中顯大夫)에 올라 사재령(司宰令), 종부령(宗簿令), 지전법사(知典法事)의 관직에 차례로 올랐다.

1378년(우왕 4, 36세) 지전법사를 맡아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당시 권신(權臣)의 미움을 받아 지전법사에서 해임되어 고향인 청주로 내려왔다. 당시 권신은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등이었는데, 최유경은 독재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이인임이나 임견미 등의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10월에 부친상을 당해²⁷⁾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하였는데, 1379년(우왕 5년, 37세)에 재취한 김 씨 부인의 상을 당했다. 김 씨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후에 판돈령을 지내고 최유경과 함께 청백리에 초선(抄選)된 최사의(崔士儀)와 경력 이좌(李佐)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23) 『平度公墓誌銘』 “公初當法府 引情徐問 不下重杖 家奴實吐 人稱剛明”

24) 『高麗史節要』 30권, 辛禡 3年 5月. “太祖素得人心 又士卒精銳 戰無不克 州郡望若雲霓”

25) 『平度公墓誌銘』 “公巡之處 軍士畏公剛明 少無違律 三道諸鎭 舉皆敬憚”

26) 이성계는 조선 건국 이후 “子之勤卿 越自副帥之時也 『平度公墓誌銘』”라 하여 최유경이 부원수였던 때부터 최유경을 인정하고 후원하였다고 말하였다.

27) 『高麗史節要』 30권, 辛禡 4年 10月. “密直副使商議 崔宰卒 宰以剛直不撓 見重於世”

1382년(우왕 8, 40세) 종2품 통헌대부(通憲大夫)에 오르고 공주목사(公州牧使)가 되었다. 그때 주리(州吏) 이식(李植)이 대흥군(大興:충남 예산)의 안집(安集)이 되어 순무사(巡撫使)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이식이 군사훈련을 위해 군인들을 이끌고 공주에 와서도 여전히 순무사의 세력을 믿고 무례하게 굴자 최유경은 이식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러자 간활한 아전들이 모두 복종하였다고 한다. 최유경은 목사로 있는 여러 해 동안 엄정자수(廉正自守)하고 청약이행(淸約以行)하여 향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모두 사랑했다고 한다. 다음은 최유경이 공주목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인 1382년 6월에 이색이 보낸 시이다.

清白公勤繼父風	청백하고 공근한 성품은 부친의 풍도를 이었고
已知仁政治於公	이미 공사에 어진 정치를 흠뻑 베풀 줄 알고 있네.
應憐病客愁炎熱	무더위에 시달리는 병객이 안타까워
欲代銀河寄茗鐘	술병 대신 찻잔을 보내주었네. ²⁸⁾

위 시에서 이색은 최유경이 청백(清白), 공근(公勤)하여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풀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한편 최유경은 1383년(우왕 9, 41세)에 옥구, 보령을 거쳐 개태사와 계룡산으로 몰려들어온 왜적 천여 명과 싸우는 등 무공에서도 업적을 남겼다.²⁹⁾ 최유경은 공주목사로 있을 때 행촌 이암(李嶽)의 아들 이숭(李崇)의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이숭은 딸 넷을 두었는데, 첫째는 최안준, 둘째는 최유경, 셋째는 조준(趙浚), 넷째는 김지에게 출가했다. 최유경은 이후 벼슬길에서 동서인 조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⁰⁾

28) 『牧隱藁』, 詩藁, 권32, 答公州牧使崔有慶走筆.

29) 『高麗史節要』 32권, 辛禡 9年 8月. “倭賊千餘 陷沃州報令等縣 遂入開泰寺 據雞龍山 文達漢·王安德·都興 進攻之 賊棄馬登山 公州牧使崔有慶 判官宋子浩 與戰于仇帖 子浩敗死 達漢及金斯革·安德·都興·安慶·朴壽年等 與戰于公州盤龍寺 斬八級 斯革追擊于木川黑帖 斬二十級”

30) 김성환, 「고려 말 조선 초 죽정(竹亭) 최유경(崔有慶)의 생애와 활동」, 앞의 논문, 242쪽.

1385년(우왕 11, 43세) 종2품 봉익대부(奉翊大夫), 판서(判書)로 승진하였다. 1388년(우왕 14, 46세) 정월 권신 임견미, 염홍방 등이 처벌되었는데, 최유경은 양광도 안렴사가 되어 권간(權奸)들이 빼앗은 백성들의 토지를 모두 돌려주었다.³¹⁾ 또 최유경은 그동안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임견미, 염홍방의 종 8인을 붙잡아 처단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도당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최영은 사건 심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처단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크게 노하여 최유경이 보낸 사자를 죽이려 하였다. 이때 이성계가 굳이 만류하므로 사자를 죽이지는 않았다.³²⁾ 이 사건을 통해 최유경은 최영보다는 이성계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계는 이후 인생의 고비마다 최유경을 보호해주었다.

1388년 5월 우왕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정벌을 강행할 때, 최유경은 서북도(西北道) 안렴사(按廉使) 겸 운량사(運糧使)가 되어 참전하였다. 이때 우군도통사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회군하니 조정 사람들이 모두 이성계에게 붙었다. 그러나 최유경은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 왕이 머물고 있던 성천(成川)으로 달려가 왕에게 회군(回軍)의 변을 보고하고 왕을 호종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군대를 거느리고 개경에 와서 정권을 잡은 이성계가 최영이 요동을 치려고 한 것은 국가에 불충(不忠)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최영을 귀양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최유경의 신변도 염려하였으나 그는 엄숙하게 있으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는 최유경의 충의(忠義)의 마음을 알고 죄를 주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밀직부사(密直副使) 상호군(上護軍)에 발탁하였다.³³⁾

위화도 회군 직후인 1388년(신창 즉위년, 46세) 8월 조정에서는 대신을 선발하여 각 도로 보내어 민정(民情)을 살피고, 그동안 쌓여온 폐단을 혁거(革去)하

31) 『平度公墓誌銘』 “戊辰 誅權臣林堅味等 公爲楊廣按廉使 推正權奸濁亂民田”

32) 『高麗史』 113, 列傳26, 崔瑩. “十四年 禍與瑩密議 誅林堅味·廉興邦 復拜瑩侍中 … 楊廣道安撫使崔有慶 捕誅林·廉家奴八人 遣人報都堂 瑩以獄辭不明 且誅殺不盡 大怒欲斬其使 太祖固止之”

33) 『平度公墓誌銘』 “當此之時 人多爲公危懼 獨正色朝端 少無幾微 太祖知公之忠義素所蓄積 不而爲罪反擢公爲密直副使 上護軍”

고자 하였다. 그래서 종래 각 도에 파견한 안렴사의 품계가 낮다 하여 그 이름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고치고, 양부(兩府: 문하부와 밀직사) 대신으로 임명하였으며,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주어 파견하였다.³⁴⁾ 교서와 부월을 주어 파견한 것은 이전에 경관(京官)에게 구전(口傳)으로 임명하던 것을 고쳐서 정식 절차대로 임명하여 그 관직에 권위를 부여한 조치이다.³⁵⁾ 당시에 각 도에 파견된 도관찰출척사는 양광도는 정당문학 성석린(成石璘), 경상도는 전평양운 장하(張夏), 전라도는 전밀직부사 최유경, 교주·강릉도는 전밀직사의 김사형(金士衡), 서해도는 밀직제학 조운홀(趙云伾)이었다.³⁶⁾ 이들의 임무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사송간(詞訟簡)·부역균(賦役均)·학교흥(學校興)을 기준으로 수령을 출척하고, 호령엄(號令嚴)·기계정(器械精)·병졸련(兵卒鍊)·둔전수(屯田修)·해구식(海寇息)을 기준으로 방진(方鎭)의 상벌을 행하는 일이었다.³⁷⁾

그런데 이때 각 도에 파견된 도관찰출척사의 주 임무는 양전(量田) 사업이었다.³⁸⁾ 도관찰출척사들은 부사와 판관을 동원하여 고려 말 문란해진 토지를 다시 측량하였는데³⁹⁾, 이렇게 하여 그 해 12월에 파악된 전국의 전결 수가 50만 결이었다.⁴⁰⁾ 이것이 유명한 고려 말 ‘기사양전(己巳量田)’이다. 그런데 최유경은 양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전주부성을 건설하고 풍남문을 건립하였던

34) 『高麗史』 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敎書·斧鉞以遣之”

『高麗史』 75, 志29, 選舉3, 銓注, 選用監司. “辛昌卽位之年 … 八月諸道都觀察黜陟使皆用臺諫之薦.”

35) 『高麗史』 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恭讓王元年 始革京官口傳 別用除授 以專其任”

36) 『高麗史節要』 33, 辛禡 14年(辛昌 卽位年) 8月.

37) 『高麗史節要』 33, 辛禡 14年(辛昌 卽位年) 7월, 趙浚 上書. “臣等 願法祖宗遣兩府之成憲 體唐室遣大臣之故事 擇兩府有廉威明幹者 爲都按廉黜陟大使 以田野闢 戶口增 詞訟簡 賦役均 學校興 巡察州郡而黜陟之 以號令嚴 器械精 兵卒鍊 屯田修 海寇息 巡臨方鎭而賞罰之 而軍官敗績 沒一州 郡守令貪汚 招納餽賂者 斬次罪 罷職論罪 次罪論罰行公以振紀綱”

38) 이인재, 「高麗末 按廉使와 都觀察黜陟使」 『역사연구』 2집, 1993, 62쪽.

39) 『高麗史』 78, 志32, 食貨1, 田制, 經理, 辛禡 14年 8月. “昌令六道觀察使 各舉副使·判官 改量土田”

40) 『高麗史節要』 권34, 恭讓王 元年 12月. “今六道觀察使所報 墾田之數 不滿五十萬結矣”

것으로 보인다. 최유경이 전주부성과 풍남문을 건립했다는 것은 조선후기 영조 때 전라감사를 지냈던 조현명(趙顯命)이 쓴 「명현루기(明見樓記)」에 나온다. 당시 조현명은 퇴락한 전주부성의 수축을 하면서 아울러 남문도 새롭게 고쳐짓고 문루 이름을 명현루(明見樓)로 지으면서, 처음 남문을 창건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주)부성을 건설한 것은 우리 태조대왕이 의를 들어 회군한 해이다. 관찰사 최유경이 이를 실제로 이를 주관했다고 한다.⁴¹⁾

이 「명현루기」를 쓴 때는 1734년(영조 10, 甲寅)이다. 이 해에 조현명은 전라감사로 내려와 있으면서 부성을 수축하고 남문을 고쳐지었는데, 기왕에 기문을 적으면서 처음 남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 기문 첫머리에 최유경의 일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지도서』에 수록된 「완산지(完山誌)」에도 “풍남문루는 … 태조대왕이 회군한 해에 관찰사 최유경이 실제 주관하여 축조하였다.”⁴²⁾는 기사가 전하고 있다. 즉 최유경은 1388년 8월에 전라도 도관찰출척사(관찰사)로 부임하여 풍남문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최유경은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도순문사(都巡問使) 최운해(崔雲海)가 왜적을 보고도 추적하지 않았다하여 그를 감금하고 정부에 죄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⁴³⁾ 최운해(1347~1404)는 조선건국이후 개국원종공신에 오르고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존된 인물로서 좌의정을 지낸 최윤덕의 아버지이다. 최유경은 그러한 최운해를 감금하고 정부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이에 수령과 장졸(將卒)들이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최유경은 장

41) 『歸鹿集』 卷18, 記, 明見樓記 甲寅. “府城之設 在我太祖大王舉義回軍之年 觀察使崔有慶實主之云 既歷年久 壞敗無餘地”

42) 『輿地圖書』 下, 補遺篇 (全羅道), 完山誌, 樓亭. “豐南門樓 卽明見樓也 觀察使趙顯命 明見樓記 府城之設 在我太祖大王 舉義回軍之年 觀察使崔有慶 實主之云”

43) 「平度公墓誌銘」 “于時都巡問使崔雲海 見賊逗遛 公監禁請罪 守令將卒 莫不振懼”

흥(長興), 보성(寶城) 등 여러 주현에서 왜구의 침략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권력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최유경의 억강부약(抑強扶弱) 정신을 볼 수 있다. 이에 창왕은 개성소윤(開城少尹) 김무(金畝)를 보내어 최유경에게 술과 옷을 하사하고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리었다.

수령과 번진(藩鎭)이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을 지경으로 되었는데 이를 시정할 사람으로 대간(臺諫)과 도당(都堂)이 경(卿)을 추천하기에 도관찰사에 임명하였다. 경은 윤음(綸音)을 받들고 강개(慷慨)하여 아침저녁으로 서리와 이슬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니 그 근고(勤苦)함을 생각하여 사신을 보내어 위문한다.⁴⁴⁾

1389년(공양왕 원년, 47세) 11월 이성계 세력에 의해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하였다. 이해에 최유경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겸 전법판서(典法判書)로 소환되었는데 망해가는 고려를 구할 수 없음을 알고 관직에서 물러나 서원(西原: 청주)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매번 집을 바라보면서 “옛 사람이 말하기를 큰 집이 무너지려하면 나무 하나로 이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니 어찌 오늘날 우리 왕조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조정의 모습을 보면 칠실지우(漆室之憂)처럼 답답할 뿐이다.”⁴⁵⁾라고 탄식하였다 한다.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보면서 자기 한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였던 것이다.

44) 「平度公墓誌銘」 “守令藩鎭 陷民於飢寒死亡 臺諫都堂 推卿爲都觀察使 奉綸音而慷慨 犯霜露而驅馳念卿勤苦 遣使慰問”

45) 「平度公墓誌銘」 “每仰屋發嘆曰 古人有言 大廈將頽 一木難支 豈非今日之朝家乎 顧念朝廷事 只切漆室之憂矣”

3. 조선 초의 관직 생활

1392년(태조 즉위년, 50세)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1393년(태조 2, 51세) 태조가 최유경에게 상정도감(詳定都監)과 도성영축도감(都城營築都監)의 임무를 맡기려 하자⁴⁶⁾, 그 측근들이 위화도 회군 때 제일 먼저 우왕에게 고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지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최유경은 충의(忠義)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어찰(御札)을 전하며 역마(驛馬)를 타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였다.⁴⁷⁾ 태조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최유경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주위 신하들에게 자주 그를 칭찬하였다. 1395년(태조 4) 태조는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에게 “최유경이 무진년(戊辰年: 위화도회군)에 우리를 배반한 것을 그의 임금을 위한 것일 따름이다. 또 그는 포치(布置)의 재주가 있다.”⁴⁸⁾라고 하면서 관직을 더욱 올려주라고 말하였다. 최유경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태조의 어찰을 받고 목은 이색에게 괴로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천지가 번복(翻覆)하니 이 어찌된 세상인가요? 우리들이 비록 죽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본조(本朝: 고려)에서 죽지 못하고 곧 오늘을 보게 되었으니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로 정달가(鄭達可: 정몽주)와 길순일(吉純一: 길재)에게 죄인이 되었으니 살아서 어찌 세상에서 순일(純一)을 상대할 것이며, 죽어서 어찌 지하에서 달가(達可)를 보겠습니까? 오직 우리 두 마음만을 서로 비춰볼 뿐입니다.⁴⁹⁾

46) 『太祖實錄』 4, 太祖 2년 8월 5일(戊寅) “始都城役” 한양 도성 공사는 1393년 8월 5일에 시작되었다.

47) 『平度公墓誌銘』 “人有以威化島 奔告之事 沮之者 太祖褒之以忠義 傳之以御札 乘之以驛駟”

48) 『太祖實錄』 7, 太祖 4년 4월 9일(壬申), “上謂右政丞金士衡曰 慶尙道都觀察使崔有慶 在戊辰年間 雖負我輩 然爲其主耳 且有布置之才”

49) 『平度公墓誌銘』 “公不得已奉聖旨 與書李牧隱曰 天地翻覆 此何世界 吾輩曾非愛死者 而不幸未死於本朝 乃見今日 生而不死也 實爲鄭達可吉純一之罪人 生何以對純一於世上 死何以見達可於地下 惟吾兩心之相照也”

최유경은 이색과 위와 같은 필담을 나눈 이후 이색을 만나 손을 잡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마주 대하여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한다.⁵⁰⁾ 그런데 『연려실기술』, 태조조 고사본말의 이색에 관한 내용 중에

공(이색)의 두 아들 종학(種學)과 종덕(種德)이 다 고려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였는데, 혁명 후에 두 마음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매를 맞아 죽었다. 그 뒤 공이 여주(驪州)의 자기 집에 물러가 있을 때, 하루는 문생(門生)이 와서 뵈거늘 공이 깊은 골짜기에 데리고 들어가니 문생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는데, 전연 인적 없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종일토록 통곡하고는 함께 나오면서 말하기를, “오늘에야 조금 내 가슴이 시원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아마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상심한 것일 것이다.⁵¹⁾

라는 구절이 있다. 이색이 문생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종일토록 통곡했다는 것이다. 최유경이 이색을 만나 손을 잡고 깊은 산에 들어가 통곡했다는 「평도공묘지명」을 통해 『연려실기술』에서 이색이 함께 통곡한 문생은 바로 최유경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평도공묘지명」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최유경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색과 함께 통곡할 만큼 고려 왕조에 대한 미련도 깊었던 것이다.

최유경은 자신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태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결국 상정도감(詳定都監)과 도성영축도감(都城營築都監)의 일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는 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하자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만류하는 태조의 간절한 교서를 받는다. 이에 결국 최유경은 조선의 관직을 받아들인다. 1394년(태조 3, 52세) 대간(臺諫)의 추천을 받아 경상도 도관찰출척사에 임명된 것이다.⁵²⁾ 그리고 1395년(태조 4, 53세)에는 개국

50) 「平度公墓誌銘」 “其後相逢 輒携手 入窮山 相對痛哭而歸”

51) 『燃藜室記述』 권1, 太祖朝古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 李穡.

52) 『太祖實錄』 6, 太祖 3년 6월 25일(癸巳) “以臺諫所薦 除各道都觀察黜陟使 崔有慶于慶尙 洪吉旼于豐海

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입록(入錄)되어 전·민(田民)을 하사받았다. 최유경은 이것은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룰 수는 없었다고 한다.⁵³⁾ 최유경은 비록 태조의 강요로 관직에 나왔지만 도관찰사가 되어 민(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관리된 자의 의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국원종공신이 되고 토지와 노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일신상의 영예로서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화도 회군을 제일 먼저 우왕에게 고변(告變)한 최유경으로서 개국원종공신 녹훈(錄勳)을 받는 것은 괴로웠을 것이다.⁵⁴⁾

1396년(태조 5, 54세) 최유경은 승례문 건설 책임자가 되었다. 이것은 1962년 승례문 해체·복원 공사 중 발견된 승례문 상량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이 상량문에는

홍무 이십구년(1396, 태조 5) 병자 시월 초육일 판사 가정대부 중추원사 최유경 부판사 전가선대부 개성부윤 이지호 ... (洪武 二十九年 丙子 十月初六日 判事 嘉靖大夫 中樞院使 崔有慶 副判事 前嘉善大夫 開城府尹 李之浩 ...)

라고 되어 있어 최유경이 성문공사의 총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1388년 전주부성과 풍남문 건설을 주관한 경력이 있는 최유경은 8년 후에는 한양도성과 승례문 건설이라는 보다 큰 사업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태조는 최유경이 ‘포치(布置)’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하였다. ‘포치’란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⁵⁵⁾ 수많은 기술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그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유경의 능력은 태조 이성계의

吳思忠于江原 金希善于京畿右道”

53) 「平度公墓誌銘」 “朝家錄開國原從勳 又賜田民 公屢謝 不獲”

54) 이에 반해 陽村 權近은 자진하여 원종공신에 추가로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상서문을 올리고 있다. (『太祖實錄』 12, 太祖 6년 12월 24일(壬寅))

55) 『漢語大詞典』. “【布置】 ①分布陳列, 分布安置 ②猶措置, 安排”

인정을 받아 새로선 조선왕조의 도성과 남대문 건설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최유경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최유경이 도성을 건설할 때, 도성감역관(都城監役官) 박리(朴理)가 군인을 시켜서 큰 돌을 운반하다가 길이 좁아 전 밀직(密直) 이사위(李士渭) 집의 울타리를 허물어트리는 일이 있었다.⁵⁶⁾ 이때 이사위가 박리를 구타하고 욕을 하자 최유경은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국왕은 이사위에게 가노(家奴) 20명을 내어 남문(南門) 공사에 나가라고 명하고, 또 이사위를 구속하였다.⁵⁷⁾ 이사위는 종2품 밀직부사를 거쳐 서해도 관찰사까지 지낸 고위 관료였다. 최유경은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공무와 관계될 때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1397년(태조 6, 55세) 경기·충청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병선(兵船)을 거느리고 서해안에 출몰한 왜적을 잡았다.⁵⁸⁾ 1398년(태조 7, 56세) 3월 태조가 개성 유후사(留後司)를 들렀는데, 개성에 있는 수창궁(壽昌宮)과 성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유후(留後) 이원광과 부유후 이옥을 파면하고, 중추원사 최유경을 유후로 임명하였다.⁵⁹⁾ 태조의 최유경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최유경은 개성 유후로 있으면서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향을 받들고 제릉(齊陵)에 가보니 능을 수호하는 여러 절차와 제사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義)로써 말하자면 제릉은 첫째 부인의 무덤입니다. 지금 개국 초기에 어찌 제릉은 박하게 하고 둘째 부인의 무덤인 정릉(貞

56) 『太祖實錄』 10, 태조 5년 8월 17일(壬寅) “都城監役官前司宰監朴理 令軍人輸大石 以道狹 撤前密直李士渭家藩籬 士渭毆辱朴理 城門提調崔有慶等以聞 上令出士渭家奴二十名 赴南門役”

57) 『太祖實錄』 10, 태조 5년 9월 12일(丁卯) “命下士渭于巡軍獄”

58) 『太祖實錄』 12, 태조 6년 7월 3일(壬子) “知中樞院事崔有慶 爲京畿·忠清道都體察使 … 率兵船 捕倭于豐海西北沿海等處”

59) 『太祖實錄』 13, 태조 7년 3월 10일(丁巳) “上在留後司 以壽昌宮及城子 不修 罷留後李元紘·副留後李沃 以中樞院使崔有慶·副使辛克恭 代之”

陵)은 후하게 하십니까?⁶⁰⁾

이러한 최유경의 비판에 대해 태조는 “내가 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담당 관리들이 보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⁶¹⁾라고 변명을 하였다. 최유경은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의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추상(秋霜)과 같은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제릉(齊陵)은 태조 이성계의 첫째부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 씨의 능으로, 한 씨는 조선 개국 1년 전인 1391년 세상을 떠났다. 한 씨는 방우, 방과(훗날 정종), 방의, 방간, 방원(훗날 태종), 방연 등 6남 2녀를 낳았다. 정릉(貞陵)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 씨의 능으로, 강 씨는 방번과 방석을 낳았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한 씨보다 강 씨를 더 사랑하여 1396년(태조 5) 강 씨가 죽자 도성 안에 극히 화려한 능을 조성하고,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흥천사(興天寺)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조의 행태에 대해 최유경이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다. 후에 왕자의 난을 거쳐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신덕왕후 강 씨는 평민으로 강등되고, 정릉에 있는 석물도 허물어 청계천 광통교 복구공사에 사용하게 된다. 정릉이 있던 이 일대는 오늘날 정동(貞洞)으로 불리고 있다.

1398년(태조 7, 56세) 7월 최유경은 경기우도 도관찰출척사에 임명된다.⁶²⁾ 그리고 1399년(정종 1, 57세) 1월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최유경은 왕에게 「무일도(無逸圖)」를 바쳤다.⁶³⁾ ‘무일(無逸)’이란 남의 위에 서는 사람은 일신(一身)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최유경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조이기도 하였다. 「무일도」는 왕이 이러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60) 『太宗實錄』 25, 태종 13년 6월 24일(辛未) 崔有慶 卒記 “臣嘗奉香于齊陵 守陵人與祭器俱未備 齊陵 先嫡也 何獨厚於貞陵也”

「平度公墓誌銘」 “公進曰 臣奉香 頃詣齊陵 則守護諸節 祭祀器具未備 以義言之 齊陵先嫡也 今當開國之初 何其太薄於齊陵 而獨厚於貞陵乎”

61) 『太宗實錄』 25, 태종 13년 6월 24일(辛未) 崔有慶 卒記 “太祖曰 非予薄之 有司不請耳”

「平度公墓誌銘」 “非予薄之 有司不告耳”

62) 『太祖實錄』 14, 태조 7년 7월 8일(辛巳) “下各道都觀察躡步使 崔有慶 京畿右道”

63) 『定宗實錄』 1, 정종 1년 1월 1일(壬申) “上率宗親 朝太上殿行賀禮 … 右道監司崔有慶 進無逸圖 皆嘉納”

으로 그린 것이다.

1400년(정종 2, 58세) 1월 흥국사(興國寺)의 금부처가 땀을 흘리자 중추원사 최유경을 흥국사에 보내어 7일 도량을 베풀고 기양(祈禳)하게 하였다.⁶⁴⁾ 흥국사는 개성에 위치한 절로서 규모가 웅장하고 화려하여 많은 문인들이 시를 남길 만큼 고려의 대표적인 절이었다.⁶⁵⁾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정종, 태종 3대에 걸쳐 흥국사 금부처가 땀을 흘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조선후기 학자인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은 겨울과 봄 사이 안개와 이슬이 불상에 응습(凝濕)하여 물방울을 이루는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불순한 자들이 요언을 만들고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⁶⁶⁾ 그런데 고려나 조선 초에 사람들은 금부처가 땀을 흘리는 것은 나라의 변고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⁶⁷⁾ 이에 중추원사 최유경을 흥국사에 보내어 기양하게 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개성에 있는 고려 유민(遺民)들이 이씨 왕조에 대한 불만으로 금부처가 땀을 흘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파악하고, 최유경을 보내 이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유민들은 최유경의 본심이 충의(忠義)로운 것을 알고, 또 그가 조선왕조에 귀순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⁶⁸⁾ 조선 정부는 이와 같이 고려 유민과 친근한 최유경을 개성으로 보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1401년(태종 1, 59세) 9월 최유경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정2품)로서

64) 『定宗實錄』 3, 정종 2년 1월 20일(乙酉) “興國寺金人出汗 翌日 遣中樞院使崔有慶 設七日道場以禳之”

65) 『宣和奉使高麗圖經』 17, 祠宇, 興國寺. “興國寺 在廣化門之東南道旁 前直一溪 爲梁橫跨 大門東面 榜曰興國之寺 後有堂殿 亦甚雄壯”. 이성계가 창왕을 내쫓을 것을 의논한 곳도興國寺였다.(『太祖實錄』 1, 總書)

66) 閔鼎重, 『老峯先生文集』 4, 疏筭, 請治全南監司狀聞佛汗之罪 仍毀佛像 以息妖訛疏. “臣即伏見全南監司李泰淵狀聞 道內諸寺佛像出汗 干係變異云云 臣不勝駭然憤慨也 夫自正道衰微 異教興行 惰業之民 髡首投跡 日以益盛 惟其益盛 故又爲之造言興訛 無所不至 乃以冬春之間 霧露之凝濕於金土之像者 強謂之出汗 惑亂民聽 動搖民心 其爲情狀 誠可痛也”

67) 『東國李相國全集』 卷25, 記,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國將有變 丈六先出汗示之”

68) 『平度公墓誌銘』 “人皆歎其本心之忠義 憐其歸順矣”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 서울로 갔다. 이때 국왕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 밖까지 전송하였다고 한다.⁶⁹⁾ 그리고 1402년(태종 2, 60세) 3월 최유경은 명나라에서 돌아와 “연병(燕兵)의 기세(氣勢)가 강하여, 승세(勝勢)를 타서 먼 곳까지 달려와 싸우는데, 황제의 군대(帝兵)는 수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세력이 약하여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⁷⁰⁾ 최유경은 5개월 이상을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정세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명 태조 사후에 벌어진 ‘정난(靖難)의 역(役)’에서 연왕(燕王: 훗날 영락제)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최유경의 예측에 힘입어 조선은 내전의 결과 새로이 탄생된 영락 정권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즉 1402년 10월 명 사신이 아직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영락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보낼 하등극사(賀登極使)로 하륜을 선정해놓고, 명 사신이 도착한 다음날 바로 축하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민첩한 대응에 영락제는 기쁨에 넘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⁷¹⁾ 이후 조선은 명으로부터 고대했던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받는 등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최유경의 혜안으로 인해 조선은 명과 순탄한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태종은 또 최유경에게 사행(使行) 길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묻자, 최유경은 풍해도(황해도)의 백성들이 매향(埋香)과 어렵(漁獵)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이러한 폐단을 없애라고 명령하였다.⁷²⁾ 매향(埋香)은 침향(沈香)을 만들기 위하여 향나무나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갯벌에 묻어두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 나무들은 갯벌에 묻힌 채

69) 『太宗實錄』 2, 태종 1년 9월 28일(甲寅) “遣參贊議政府事崔有慶如京師 賀正也 上以冕服率百官拜表 至宣義門外”

70) 『太宗實錄』 3, 태종 2년 3월 6일(己丑) “賀聖節使參贊議政府事崔有慶 回自京師 有慶啓曰 燕兵勢强 乘勝遠鬪 帝兵雖多勢弱 戰則必敗”

71) 박원호, 「明 靖難의 役에 대한 朝鮮의 對應」,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72) 「平度公墓誌銘」 “上問使行時 沿路所見何事 公對以豐海道埋香漁獵之弊 上納其言 卽命革之”

오랜 세월이 지나면 침향이라는 매우 귀한 향재(香材)·약재(藥材)가 된다고 여겼다.⁷³⁾ 이에 당시 지방관들은 침향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매향을 강요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관들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어렵(漁獵)을 강요하여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유경의 이 대답으로 인해 백성을 괴롭히던 폐단이 없어진 것이다. 최유경의 투철한 애민(愛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최유경은 1403년(태종 3, 61세) 4월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가 되고, 그 해 8월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으며⁷⁴⁾, 윤11월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⁷⁵⁾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서원(西原: 청주)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했지만 1406년(태종 6, 64세) 다시 참찬의정부사에 제수되었다.⁷⁶⁾ 이때 국왕은 삼사(三司)와 육조(六曹)에게 노성인(老成人)으로서 정부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모두 최유경이라고 대답하기에 다시 참찬의정부사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이후 최유경은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정부 일을 많이 도왔다고 한다.⁷⁷⁾ 그리고 1413년(태종 13, 71세) 6월 24일 집에서 병으로 작고하였다. 나라에 부고(訃告)하니 3일간 철조(輟朝)하였고 부의(賻儀)도 후하게 하였다. 8월 13일 경기도 용인현 자봉산(紫鳳山) 구동(駒洞)에 예장하였다. 자녀는 6남 1녀를 두었으니 1남 사위(士威)는 한성판윤(漢城判尹: 정2품), 2남 사의(士儀)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정1품), 3남 사규(士規)는 사헌부 지평(持平: 정5품), 4남 사강(士康)은 의정부 우찬성(右贊成: 종1품), 5남 사

73) 『星湖僿說』 12권, 人事門人, 香徒. “傳 橡木入水 經千歲則成香 故古人乃聚民約劑 多伐木入水 仍立碑為證 蓋為後人慮也 今沿海往往有埋香碑”

74) 『太宗實錄』 6, 태종 3년 8월 20일(乙丑) “以崔有慶 爲判漢城府事”

75) 『太宗實錄』 6, 태종 3년 윤11월 27일(庚午) “以崔有慶 爲大司憲”

76) 『太宗實錄』 12, 태종 6년 윤7월 13일(庚午) “崔有慶, 柳亮 參贊議政府事”

77) 『平度公墓誌銘』 “丙戌(1406년) 上命各司 薦老成人可任政府者 三司六曹同辭 並薦以公舉之 閏七月 陞拜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 自是國政必與聞謹事 八年多有贊襄矣”

『太宗實錄』 25, 태종 13년 6월 24일(辛未)에 있는 ‘최유경 卒記’에는 “謝事七年 以病卒 年七十一”이라 하여 政事를 사양하고 물러난 지 7년 만에 病으로 卒하였다고 하였으나, 『平度公墓誌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유경은 죽을 때까지 정부 일에 대해서 자문해 준 것으로 보인다.

용(土庸)은 중추부사(中樞府事: 정3품), 6남 사흥(士興)은 유복자(遺腹子)로서 현감(縣監: 종6품)을 지냈고, 딸은 함길도 경력(經歷: 종4품) 이좌(李佐)에게 출가하였다.⁷⁸⁾

3. 최유경의 청백리 정신과 충(忠) 사상

변계량이 지은 「평도공묘지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도공 최유경의 생애를 총평하고, 시호 ‘평도(平度)’의 뜻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공은 강명(剛明) 과단(果斷)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잘잘못에 따라 사람을 올리고 내렸다.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개가 출중하여 용감하게 말하며,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고 중외(中外)를 출입하여 기강을 떨쳤다. 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여 6년간 시묘하였으며, 조정에 있는 지 20년 동안 사람들이 맑고 곧다고 칭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정론이었으며 천품으로 얻은 것이 이와 같다. 평도(平度)라고 시호를 내리니 기강을 펴고 버리를 다스리는 것을 평(平)이라 하고, 마음이 능히 의를 절제하는 것을 도(度)라고 한다.⁷⁹⁾

최유경은 위 총평과 같이 강명 과단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였으며,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말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데 온힘을 쏟았다. 비록 그는 전주 풍남문과 한양 숭례문 건축을 주관하고, 태조 이성계로부터 ‘포치(布置)’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업무처리 능력에 뛰어났으나, 평생 강명과단(剛明果斷), 호선질악(好善疾惡), 억강부약(抑強扶弱)하는 삶을 살았다.

78) 『全州崔氏世譜』, 「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贈諡平度公崔公墓誌銘」

『國朝人物考』下, 人物續考 6, 蔭仕, 崔有慶. 墓表(崔後亮 지음)

79) 「平度公墓誌銘」 “公 剛明果斷 好善疾惡 黜陟幽明 不畏強御 倜儻敢言 無所撓屈 出入中外 振起法綱 事親克孝 六年廬墓 立朝廿載 人稱清直 蓋有當世之定論 而其得於天稟者 如是矣 贈諡平度 布綱治紀曰平 心能制義曰度”

즉 최유경은 30세 때에는 권세가가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염분(鹽盆)을 고발하여 국가 소속으로 돌렸으며, 32세 때에는 공민왕의 딸인 희전(姬殿)이 백성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것을 막았고, 공민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환관 윤충좌를 탄핵하였다. 36세 때에는 지전법사(知典法司)가 되어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권신(權臣)들의 미움을 받아 해임되어 고향으로 내려왔고, 40세 때에는 순무사(巡撫使)의 총애를 받고 있다하여 무례하게 굴던 주리(州吏) 이식(李植)을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46세 때에는 권신 임견미, 염홍방 등에 의해 빼앗긴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행패를 부린 임견미, 염홍방의 종 8인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우왕에게 제일 먼저 고변(告變)하였다. 또 전라도 도관찰출척사가 되어서는 훗날 개국공신에 오른 도순문사 최운해(최운덕의 아버지)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감금하였다. 54세에 도성 건설을 주관할 때에는 업무를 방해하던 이사위(종2품 밀직부사, 서해도 관찰사)를 태조에게 고발하여 결국 구속시키게 하였다. 55세 때에는 태조 이성계에게 “제릉(신의왕후 한 씨의 능)은 박하게 하고 정릉(신덕왕후 강 씨의 능)은 후하게 하는 것은 의(義)에 맞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최유경은 어떤 권세가도, 왕의 딸도, 심지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불의(不義)·부정(不正)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그래서 32세 때 강원도 안렴부사에서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되어 개경으로 올 때, 강원도 도민들이 부모를 잃는 것처럼 슬퍼하였다고 한다. 33세 때에는 전법총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실토하지 않던 이사충의 가노(家奴)를 심리적으로 달래어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고 자백하게 했다고 한다. 그의 애민(愛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3세 때에는 권세가들에 의해 빼앗긴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46세 때에

는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 굶주리게 되자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원하였다. 59세 때에는 사행(使行) 길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매향(埋香)과 어렵(漁獵) 등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썼다. 이것들은 묘지명이나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에 나오는 것만을 열거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은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자의 부정과 횡포를 억누르고, 약한 자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애쓴 최유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각각 3년씩 6년간의 시묘살이를 하였다.⁸⁰⁾ 이에 세종 때 정부에서는 그의 효성에 대해 정려(旌閭)를 세워 표창하였다.⁸¹⁾ 그리고 관직 생활에서도 사람들이 ‘맑고 곧다’라고 칭할 만큼 깨끗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1401년(태종 원년) 아들 최사의와 함께 청백리로 초선(抄選)되었던 것이다.⁸²⁾ 기존 연구에 의하면 태종 조에 청백리로 뽑힌 인물들은 고급관료나 영향력이 강한 별족(閥族) 등에서 선정되기 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관직자로서 나름대로의 소명을 다한 인물 중에서 선발되었다고 한다.⁸³⁾ 그러다가 세종 조에 이르러 황희, 맹사성 등이 청백리로 초선되면서 의미가 약간 달라진다고 추정하였다. 즉 태종 때 청백리로 뽑힌 사람들은 글자그대로 관직 생활을 부패 없이 한 분을 지칭하였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순수한 차원의 칭호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유경의 청백리로서의 삶은 당시 사람들과 국가에서 공인(公認)한 사항인 것이다.

다음으로 최유경의 충(忠)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최유경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388년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80) 「平度公墓誌銘」 “事親克孝 六年廬墓”

81) 충북 청원군 북이며 대울리에 최유경 孝子碑閣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世宗朝 命旌孝子 崔有慶之門 肅宗庚辰改豎石碑曰 朝鮮孝子參贊議政府事平度公崔有慶之碑”

82) 『增補文獻備考』 제198권, 選舉考 15, 薦用 1. “太宗 元年 以慶儀·李之直·金若恒·李伯持·朴瑞生·李原·崔有慶·崔士儀 選清白吏”

83) 金文澤, 「조선초기 한 인물을 통한 청백리(清白吏) 고찰」, 『충북사학』 16집, 103쪽.

우왕에게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다. 최유경은 비록 1377년 도원수 이성계 휘하에서 부원수(副元帥)로 있으면서 이성계의 신임을 받고, 이후 인생의 고비마다 이성계의 많은 후원을 받았으나 이성계가 고려 국가에 반란을 일으킬 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고 이성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무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389년(공양왕 원년) 멸망으로 치닫는 고려왕조를 보면서 “큰 집이 무너질 때는 나무 하나로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절도 있게 물러난 것이다. 이후 최유경은 고향에 머물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선 건국 이후, 1393년(태조 2) 태조는 최유경에게 상정도감과 도성영축도감의 일을 맡기고 역마를 타고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였다. 이에 최유경이 목은 이색에게 “고려 때 죽지 못하고 조선 건국을 보게 되었으니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등 괴로운 심정을 필담으로 피력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결국 서울에 올라가 도성영축도감 일을 맡은 지 1년 후, 최유경은 축성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태조 이성계는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였다.

다만 축성하는 일만 마치고 곧 물러나려 하니 (조선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인가? 내가 경(卿)을 아끼는 것은 부원수 때부터의 일이고, 경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또한 (위화도회군을) 보고하려 달려가던 날부터의 일이다. 내가 경을 아끼는 것과 경이 나를 미워하는 것 모두 어찌 충(忠)을 사랑하고 충(忠)에 격동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제 천지가 변하였으니 경의 의(義)에 처함이 어찌 정몽주와 다름이 있겠는가? 경은 기미를 알고 고향으로 물러났으며, 정몽주는 정권을 잡고 조정에 서있었으니 이로써 생(生)과 사(死)가 결정 난 것이다. 그때의 나아감과 물러섬이 어찌 오늘과 관계가 있는가? 옛말에 죽어도 충(忠)이

요, 살아도 충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나아가도 충이요, 물려서도 충이라는 말이 있다. 경이 전조(前朝) 벼슬에서 물러난 것은 기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오늘날 관직에 나오는 것은 의를 조절하는 마음이다. 내가 경을 예(禮)로써 충의지신(忠義之臣)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경 또한 한번 과인의 조정에 서보고 물러나지 말라.⁸⁴⁾

이 교서를 받고 최유경은 오열(嗚咽)하고는 관직에 나아갔다고 한다. 여기에서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최유경을 아끼고, 최유경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모두 충(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또 최유경은 고려가 망할 것을 알고 물러났으나, 정몽주는 고려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조정에 버티고 서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것 역시 모두 충(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설득하고는 세상이 변했으니 조선의 조정에 서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러한 태조의 교서를 읽고 최유경은 조선의 관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태조가 말하는 충(忠)은 최유경의 충과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 같다. 태조는 충을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한다.(盡心曰忠)⁸⁵⁾”는 충의 본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태조는 자신이 최유경을 아끼는 것을 충이라 하고, 또 최유경이 고려가 망할 것을 알고 물러난 것도 충이라고 하였다. 반면 당시까지 최유경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의 의미로 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였다. 국왕에 대한 충성을 충의 본령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우왕에게 위화도회군을 고변하였고, 조선 건국이후 태조가 부르자 목은 이색에게 고려에서

84) 「平度公墓誌銘」 “太祖因下教曰 只塞責於築城 而旋欲僑歸 則無乃不臣之心歟 予之勤卿 越自副帥之時也 卿之惡予 亦自奔告之日也 其所勤卿 其所惡予 何莫非流出於愛忠激忠之中乎 雖然到今 滄桑已變 卿之處義 豈不與鄭侍中有異哉 卿則知幾退鄉 鄭則執政立朝 是以生死已判 於曩時進退 何關於今日耶 古有死亦忠生亦忠之言 又有進亦忠退亦忠之語 卿之退仕 前朝知幾之人也 進身今日制義之心也 予欲使卿以禮既許忠義之臣 則卿亦一立寡人之朝 不宜遞退”

85) 『說文解字』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필담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교서를 읽고, 최유경은 충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출사(出仕)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는 “민(民)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은 그 다음이며, 임금(君)이 가장 가볍다.”⁸⁶⁾라고 말하였다. 즉 왕보다도, 사직보다도,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민본(民本) 사상을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진시황의 전국 통일 이후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민본 사상은 사라지고,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충군(忠君) 사상이 강조되었다. 한나라의 동중서는 ‘군위신강(君爲臣綱)’을 삼강(三綱)의 으뜸으로 꼽았고, 송나라 주희는 “임금이 위에서 존귀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공손하여야 한다. 존귀하고 비천하고 크고 작은 것은 서로 절대 침범할 수 없다.”⁸⁷⁾라고 하면서 충군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충군 사상은 고려로 전파되어 고려 사회에서 점차 내면화되었고, 최유경 역시 이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그는 고려에 대한 충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한 이후 급속히 사회가 안정되어 갔다. 고려의 충신으로 알려진 원천석(元天錫) 같은 인물도 태조 3년(1394)에는 “천명과 인심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니, 새 나라를 안정시킨 공이 하루아침 사이에 있었네.”⁸⁸⁾라는 시를 쓸 정도였다.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유경은 원공공신 책봉을 거절하였으나, 설장수나 권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원종공신이 되기를 간청하고 있었다.⁸⁹⁾ 최유경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태조의 교서를 받고는 충군(忠君)이 아니라 민본(民本)을 위해 출사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유경은 고려 말 자기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망해가는 고려를 보고 절망하였다. 따라서 고려 말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이 들어선 조선에서

86) 『孟子』, 盡心 下.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87) 『朱子語類』 권68. “君尊于上 臣恭于下 尊卑大小 截然不可侵犯”

88) 『耘谷行錄』 권5, 詩, 伏觀奉金尺詞受寶錄致語 慶而贊之 “天命人心歸有德 鼎新功在一朝間”

89) 『太祖實錄』 12, 太祖 6년 12월 24일(壬寅)

는 민본 사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김성환은 「평도공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은 위화도 회군에 반대했다가 신왕조에 참여한 최유경의 태도 변화가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후손들이 최유경이 이색에게 정몽주와 길재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내용을 그 해소 장치로서 넣었다고 주장하였다.⁹⁰⁾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정계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 후손들이 부끄러워 한 예는 거의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장수와 권근은 스스로 태조에게 자신들을 원종공신에 넣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황희 역시 고려 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 학관(學館)을 지냈으나, 조선 건국이후 정계에 참여하여 세종 때에는 무려 19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다. 그러나 황희 후손들이 이를 부담으로 생각했다거나 부끄러워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최유경이 신왕조에 참여한 것 역시 결코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0) 김성환, 앞의 논문, 228쪽.

평도공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최병선 (향토사 연구원)

1. 평도공에 대하여

평도공의 본관은 전주이며 고려 숙종조에 신호위 상장군을 지낸 문열공 순작의 후손이다. 고려 충혜왕 4년(1343) 4월 갑자일(29일 양력 5월 23일 금요일)에 지금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리에서 아버지 최재와 어머니 무안군 부인 박씨의 3남으로 출생했다. 자(字)는 경지이고, 호(號)는 죽정이며, 시호(諡號)는 평도(平度)인데 모두 평도공이라고 한다.

나는 이곳 전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타동네를 지나칠 때 만나는 어른들께서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본이 어디냐?”고 물으면 “전주최가”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다시 “무슨 파냐?”하고 물었다. 감무공과 평도공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다르지만 양반집 자손이네” 하는 말을 듣고 자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묻는 이가 전주최씨로 생각된다. 그때는 평도공과 감무공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대로 대답을 했었다.

선조의 행장을 말할 때 대부분 가전(家傳)과 묘지명, 그리고 족보에 수록된

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전은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더러 있지만 향토사 연구에서는 필요하다. 묘지명 역시 미화 되거나 과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지만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시 할 수만도 없다. 나는 오늘 학술대회에 임하기 전에 군산대학의 김종수 교수가 쓴 “평도공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을 읽었다.

김종수 교수는 머리말에서 평도공에 대한 논문은 김성환 학예연구원이 2013년에 쓴 “고려말조선초 죽정최유경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논문이 유일하다고 했다. 김성환은 이 논문에서 평도공이 목은에게 보냈다는 서간문을 두 임금을 섬긴 평도공의 행적이 부담스러워 후손들이 추가한 것으로 단정했다. 이와 함께 당초의 평도공의 묘지명에는 찬자의 관직과 성함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를 추가 했고 춘정집에 원문이 없으므로 신뢰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김성환은 또 전서공의 묘지명이 당시 목판으로 발간된 세보와 달리 필사된 것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묘지명은 후대에서 수정과 첨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미상(未詳)으로 알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동학란이 동학혁명으로 바뀐 것처럼 역사의 재해석이 나오면 그에 맞게 바뀌야 한다. 김성환이 평도공 묘지명을 대하는 태도는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는 진품명품의 감정위원의 눈으로 살핀 것이어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자료를 살피는 아량과 노력이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정종실록에 “1399년 1월 1일에 평도공이 무일도를 바쳤다.”고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평도공 묘지명에는 “태종2년(1402)에 무일도를 바쳤다”고 돼있다. 이것은 묘지명을 부탁한 후손이 기억에 의존하여 제시한 자료 탓이다. 후세에서 이 사실을 알면 신뢰성이 높은 실록에 따라 묘지명을 바꾸면 되는데 간혹 꾸며 대는 일이 있어서 문제다.

군산대학의 김종수교수는 “평도공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에서 연려실기술을 인용하여 평도공과 목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목은이 고향에

머물 때 문생(門生)한 사람이 찾아오자 “둘이 손을 잡고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나와 회포를 풀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생이 바로 최유경일 수 있다. 변계량과 평도공의 관계도 자료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서로의 사상이 비슷하므로 자연적으로 교감을 갖고 교류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주최씨 세보나 묘지명에 기록된 내용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것들이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서 고려의 신하가 조선의 신하가 된 것을 후손들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설장수와 권근은 자신을 원종공신에 넣어 달라고 간청한 예를 들어 평도공이 원종공신을 사양한 것은 떳떳한 일이라고 했다. 고려의 신하로 두문동으로 들어간 황희도 조선의 영의정을 지냈지만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2. 평도공 연구에 참조할 사항

(1) 1375 형조 전법총랑(정4품)이 되어서 “이사충의 가노(家奴)가 심한 고문(拷問)에도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평도공은 가노를 몇 차례 만나 다정한 말로 정황을 캐묻자 가노가 범행을 실토 하였다. 당시 신분이 천한 피의자에게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자백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며 평도공의 인품과 능력을 드러낸 일이다. 가전(家傳)으로 전해오는 가노의 범행동기 : 마당을 쓸다가 이사충이 친구를 배웅하며 “노비는 가혹하게 다뤄야 하네.” 하는 말을 듣고 “분개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

(2) 1394년 6월 25일에 경상도 도관출척사가 되어 조선조정에 처음으로 출사

했다.

실록에 의하면 한양도성은 1394년 윤9월13일에 처음으로 도성조축도감을 설치하고 1396년1월9일부터 착공했다. 그런데 묘지명에는 1393년에 도성영축도감으로 출사 했다고 기록했다.

- (3) 1396~1398. 2. 8 승례문 공사를 마쳤다. 1962년도에 승례문을 해체할 때 상량문에 의해 평도공이 총감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2층 종도리 8단 중앙에 軍人完山府任領內合陸仟捌佰拾柒名(군인완산부임령내 합육천팔백십칠명) 이라고 쓰여 있다. 상량문에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1388년에 전주성과 성문을 축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평도공은 전주군인 연인원 6817명을 동원하여 한양성과 승례문 축조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4) 태종4년(1404) 2. 6 형의 상(喪)을 당해 사진(仕進)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입궐했다가 사헌부가 해주에서 시행하는 강무에 참여하는 어가를 수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왕을 알현하여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아뢰고 하륜이 이에 동조하여 수종을 하게 하여 수장(首長)의 역할을 다하였다.

- (5) 태종6년(1406) 임금이 이어소(移御所)를 지으라며 수리제조관을 삼았는데 당초보다 몇 간을 더 지으려고 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뜻에 배치된다며 모두 허물라고 하자 밤을 새워 모두 철거했다.

- (6) 평도공은 충에 못지않게 효행 또한 지극하여 세종때 받은 효자정려가 청

주시 북이면 대울리에 있다. 평도공의 장남 사위는 아버지 시묘를 행하여 효자로 알려져 있고, 막내아들 사흥은 어머니 병환이 깊어 백약을 써도 효험이없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탕약에 넣고 달여드리자 쾌차 하였다는 사흥할고(士興割股)의 효를 행하여 대흥현감이 되고 성종때 받은 효자 정려가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입구에 있다.

(7) 고성현부인의 역할

고성현 부인은 평도공의 3취 부인으로 검교시중 고성(固城) 이숭의 딸이며 평도공이 40세인 1382년에 20살 안쪽인 부인과 혼인했다. 평도공께서 졸하시던 때 수(壽)가 71이었는데 유복(遺腹)이 있었다. 8월에 장례를 치르고 10월에 출산하니 이가 막내아들 사흥이다. 이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남자는 70에도 생산이 가능하고, 여자는 40대 중반에 단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50살에 자식을 얻는 신등이가 있다. 이때 고성현부인의 나이가 50안쪽이어서 출산이 가능했다. 고성현 부인은 남편의 운구를 따라 용인에 당도했다. 그런데 전직 장군 김소남이 운구가 자신의 농막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를 했다. 부인이 즉석에서 임금께 상소를 하여 왕의 특명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 상소로 인해 11월11일에 조정에서 농막의 울타리를 1품의 경우 사방 100보로 하고 품계가 낮아질수록 10보씩 감하여 서민은 10보가 되도록 정하게 되었다.

맺는말

평도공은 충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 권신과 강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백성들에게는 권신들에게 착취당한 토지를 되찾아주었다. 이사충의 가노

사건에서 보듯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 시키려고 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이라 말할 정도로 고려의 신하였으며, 자신의 기능을 살려 전주와 한양의 성과 성문을 축조하여 유물과 국보가 되었다. 전주를 관향으로 전주 최씨는 4계파가 있다. 그 중에서 문열공 순작 후손 최유경은 풍남문을 유물로 남겼고, 문성공 아의 후손 담과 연촌 덕지는 각각 한벽루와 종대(宗臺)를 남겼다. 전주시민들이 풍남문과 한벽루 그리고 한옥마을의 종대를 보며 전주최씨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논문을 작성해 주신 김종수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토론을 마친다.

평도공의 관직

공민왕 9년(1360) 18세에 선인랑

공민왕 21년(1372) 30세 판도좌랑 염분을 염창에 귀속시키자는 품의

공민왕 23년(1374) 32세 사헌부 장령으로 윤충좌 탄핵

우왕 원년(1375) 33세 형조 전법총랑 이사충 가노의 범행동기 밝혀냄

우왕 3년(1377) 35세 전라 경상 충청 등 3도 부원수. 이성계의 신망 받음

우왕 8년(1382) 40세 통헌대부 공주목사가 되다. 이듬해 8월 계룡산 왜구 격퇴

우왕 14년(1388) 46세 요동 정벌 때 서북면 윤량사 겸 찰방. 위화도 회군고변

창왕 원년(1388) 46세 전라도도관출척사로 부임 전주성과 성문공사 시작

공양왕 원년(1389) 47세 동지밀직사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

태조 3년(1394) 52세 경상도도관출척사가 되어 조선에 출사(出仕)

태조 5년(1396) 54세 한양도성과 성문제조가 되었다.

태조 6년(1397) 55세 경기 충청도도체찰사가 되다.

태종 원년(1401) 59세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가

되었다.

태종 3년(1403) 61세 판한성부사가 되었다가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태종 4년(1404) 62세 판 한성부사

태종 6년(1406) 64세 사간원과 6조의 추천으로 참찬의정부사가 되었다.

죽정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이용엽 (국편사료조사위원)

먼저 평도공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신 군산대 김종수 교수님에게 그동안 묻혀있던 평도공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풍남문을 지은 최유경에 대해 아직 논문 한편 없는 처지에서 선행 연구자이신 김성환의 논문에서 주로 태종실록에 수록된 줄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전주최씨 十修世譜 수편에 수록된 변계량이 지은 조선 참찬의정부사 평도공 묘지명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이 영조때 간행된 〈전주최씨 세보〉의 정현대부 참찬의정부사시평도공 묘지명에는 나오지 않고 평도공 묘지명의 찬자가 변계량으로 되어있는데 최유경과 변계량의 교류관계를 살필수 있는 자료가 없다하여 이것 역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은 위화도회군에 반대했다가 신왕조에 참여한 최유경의 태도변화가 후손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후손들이 최유경이 이색에게 정몽주와 길재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

했다는 내용을 그 해소장치로서 넣었다는 것으로 종중에서 간행한 <전주최씨 十修世譜>와 <德傳千秋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중회 2009>는 자료이용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각주까지 붙여 강조한 부분에 대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 왕조실록>,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을 검토하여 가장 중요한 최유경과 이색의 필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였고 평도공 묘지명을 쓴 변계량과 최유경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출처가 없고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해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를 연구하는 처지에서 보면 문헌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왕조실록>등 편찬 자료만 중시하고 종중의 족보나 문집 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고려사절요>와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지향하는 사상이 같으면 후손들이 찾아가 비문을 부탁하는게 관례인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참고하여 최유경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의 청백리 정신과 충사랑에 대하여 고려말 조선초 격동의 시대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최유경의 생애와 사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과 감명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 있는 자료도 행여 화를 입을까봐 숨기고 있다가 다음시대에 기록된 사실은 허다하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한데 대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말하는것인데 평도공께서 전주관찰사(1388)에 부임했을 때 전주에는 전주최씨로 최담(1346-1389)이란 인물이 한벽당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담은 정포은의 외손서로 고려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아들 삼형제인 광지,극지(고려문과), 덕지(조선조문과)가 있었는데 그들은 연배도 비슷하고 사상도 같은 것 같은데 그들과 전혀 모른체하고 지냈는지, 기록이 없는지 이 부분이 이 지역사 연구에 중요하다 하겠으니 앞으로 좀더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이런 부분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와는 다른 질문 같은데 전주 풍남문을 조현명이 지었고, 기문에 최유경이 최초로 지었다고 언급했는데 중요한 풍남문의 글씨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궁금합니다. 차제에 다음기회에는 이 풍남문의 서자를 밝힌다면 전라북도 금석문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 정신을 함양하는 학술대회

인 쇄 | 2015년 12월 25일

발 행 |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 나종우

주 관 | 이용엽 · 김진돈

집필자 | 송 권, 이용엽, 유종권, 김진돈, 이종근

편집인 | 김진돈, 장선희, 한상영

사진촬영 | 한상영, 송 권

발행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Tel. 063-255-3360, Fax. 255-3370

인쇄처 | 신아출판사(063-275-4000)

* 이 책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제작되었음.